

[논 문]

## 축구와 조선족 사회의 자기통치

— 연변FC 사례를 중심으로

박규환\*, 홍용일\*\*

### 차례

- I. 서론: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
- II.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와 축구의 문화자본화
- III. 고향상실과 조선족 네트워크 형성: 사회의 급변과 축구의 부침
- IV. 연변FC와 조선족의 자기통치: 작동과 마음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변FC(Yanbian Funde Football Club, 延邊富德足球俱樂部)를 사례로 조선족의 에스닉 마이너리티(Ethnic minority) 자기통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족의 에스닉 마이너리티 자기통치는 '나는 조선족'이라는 인식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방식의 구현'이자 '문화현상'이다.

축구는 오랫동안 조선족의 문화자본으로 기능했다. 20세기 초 반일 민족 애국자들이 설립한 학교를 중심으로 축구 문화가 확산됐다. 1932년 건국 된 만주국은 '국민 만들기'를 위해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보급했다. 이에 대응해 조선인은 축구를 일상문화로 향유하면서 동시에 축구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결속하고 민족을 표상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동북지역의 조선족은 이미 일상문화로 자리 잡은 축구를 지역사회와 교육기관(학교)을 통해 더 발전시켰다. 또한 당시 조선족 축구팀은 줄곧 좋은 성적을 거두며 "중국 축구의 고향"(足球之鄉)으로 불렸다. 1994년 중국 프로축구 출범 후 조선족 축구팀은

\*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박사과정.

\*\*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부침을 겪었다. 1997년에는 한국인 최은택 감독의 지휘 아래 중국 프로축구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2000년 구단 매각 이후 2부, 3부 리그를 전전하며 긴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2015년 한국인 박태하 감독이 연변FC를 이끌고 2부 리그(갑급리그)에서 우승하여 팀을 15년 만에 1부 리그(슈퍼리그)로 이끌자 다시 축구 열풍이 불었다.

현재 중국 프로리그는 정부의 전폭적 지지 아래 막대한 자본과 사회적 지원을 투입하며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초국경 이주, 사회 재구성 등을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서의 축구는 다르게 기능한다. 지속적 '주변화'가 촉진한 중국 내 대도시 및 세계 각지에 형성된 조선족 사회들의 정서가 결집했다. 다양한 조선족 네트워크가 위챗(Wechat, 微信)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결됐고, 온라인 공간에서 스스로 텍스트를 생성하며 소통한다.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 축구는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 표출과 산발적인 네트워크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촉진하며, 조선족의 자기통치 기능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제어: 연변FC, 에스닉 마이너리티, 조선족 축구, 문화자본, 조선족 자기통치

## I. 들어가며: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

자기통치(self-governance)는 푸코가 제기한 개념이다. 개인 혹은 집단이 국가나 여론에 의한 권력 작용을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타협·절충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통치하며 개인의 주체성을 살려간다는 것이다.<sup>1)</sup> 푸코는 '자기통치가 가능한 선에서 타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체되기'이자 이를 위한 '자기배려'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기통치하는 주체는 규정된 질서에 자신을 편입시키지 않고 지향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지도 않는다. 푸코의 '자기통치하는 주체'는 자기완성·자기성취·자기실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변형'하는 주체다.<sup>2)</sup>

1) 權香淑, 2011, 『移動する朝鮮族 : 에스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彩流社, 321쪽.

2) 양세진, 2017, 「정부 통치성에 대한 연구: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 푸코의 자기통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909~2910쪽.

권향숙은 이 자기통치 개념을 조선족 연구에 변용·응용해 조선족의 이동과 네트워크 형성의 역동성이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와 조선족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된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라는 삶의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한다.<sup>3)</sup> 조선족은 국민 통합, 사회 재편성 과정을 거치며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런 조선족의 복합적인 정체성은 계층성, 사회관계 속의 정위(定位), 거주국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주변화, 그리고 ‘나는 조선족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형성된 다원적 네트워크 등의 여러 요인들이 뒤섞이며 형성된 것이다. 조선족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역학 속에서 ‘소수화·주변화’되면서도 동시에 이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다.<sup>4)</sup> 현재 중국 내 대도시,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형성된 다양한 조선족 단체와 활동이 이를 방증한다. 이 네트워크는,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으로 발생한 지속적인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역사적 기억과 구조적 제약을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환해 내고 있다.

에스닉 마이너리티에 의한 문화적 창조현상은 저항과 체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sup>5)</sup> 권향숙은 ‘나는 조선족이라는 인식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방식을 구현하는 (문화적 창조)현상을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라는 개념, 즉 개인 혹은 집단이 주체를 스스로 구성·결정해가는 프로세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재일조선족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활용했다. 일본 내 조선족의 생활과 실천을, 조선족이라는 사람(노드, node)과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네트워크(링크, link)가 집합행위의 재

3) 권향숙, 2011, 앞의 책, 59쪽.

4) 권향숙, 2011, 앞의 책, 320쪽.

5) 공통의 역사, 언어, 풍습, 종교, 혈연 등 문화적 표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 집단 범주: ‘민족’은 일정한 역사적 영토를 배경으로 자신에게 속한 국가에 귀속·소유하려는 의지를 갖고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전개하는 행위자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에스닉 집단’은 국가와 관련한 정치성보다 문화적 독자성과 사회·경제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에스니시티(ethnicity)는 에스닉 집단에 대한 귀속 상태·귀속 의지를 표출하는 총체적 성격으로 언어·문화의 수호와 유지, 사회적 차별의 철폐, 경제 격차 시정(是正) 등을 추구한다. 梶田孝道, 1996, 『民族・國家・エスニシティ論』の現状と課題, 井上俊編, 『民族・國家・エスニシティ』, 岩波書店, 247-248쪽.

일본 중국조선족(허브, hub)에서 연결·작동하는 문화현상이란 관점에서 분석하여 에스닉 마이너리티(ethnic minority)의 자기통치를 해석했다.

조선족 자기통치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스포츠를 설정할 수 있다. 스포츠는 집단을 표상한다. 스포츠 경기는 선수와 관중을 경기와 응원의 공동체로 결속해 집단주의를 배태하기 때문이다. 이 집단주의는 미디어와 집단적인 기억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넘어 사회로 확대된다. 이 집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다. 그러나 표상할 국가가 부재할 경우 다른 대상(민족·지역)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한다.<sup>6)</sup>

만주의 조선인·조선족은 식민지 시기에 스포츠를 경험했다. 당시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이자 동시에 만주국의 신민이었다. 게다가 일본제국의 신민·법적인 일본인-에서도 ‘내지안’과는 다른 ‘반도안’으로 분류당했다. 따라서 만주국의 조선인이 스포츠에서 민족을 표상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인 선수단이나 조선인 선수를 통한 것이었다. 현재 조선족이 집거하는 간도(연변 일대)는 만주에서 유일하게 조선인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지역으로, 스포츠를 통한 민족 표상이 일상적이었다.<sup>7)</sup>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 공민으로서의 조선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국가와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압박에서 에스닉 마이너리티인 조선족 일반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 및 문화 영역뿐이었다. 이 중 축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축구는 조선인·조선족 사회에서 교육기관과 사회관계를 통해 유지·확산돼 조선인·조선족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 지점으로 작동했다. 또한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인·조선족이 자신을 표상하고 표현하는 대표 매개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축구는 조선족 사회의 ‘문화자본’<sup>8)</sup>으로 자리 잡았다.<sup>9)</sup>

6) 이동진, 2013, 『간도의 조선인 축구—마을과 학교에서 민족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0, 313쪽.

7) 이동진, 2013, 앞의 논문, 314쪽.

8)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자본을 가정환경과 학교교육 등을 통해 개인에 축적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행동에 체화된 유·무형의 소산으로 파악한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을 구체적으로 3개의 자본, 즉 체화된 문화자본(도서, 그림, 도구 등), 제도화된 문화자본(학력, 자격증), 신체화된 문화자본(교양, 취미, 감성 등)으로

본고는 조선족의 자기통치를 연변FC(Yanbian Fude Football Club, 延邊富德足球俱樂部)<sup>10)</sup> 사례로 검토한다. 연변FC는 2015년 갑급리그(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 우승으로 15년 만의 1부 리그 승격<sup>11)</sup>을 결정지어 조선족 사회를 열광시켰다. 1부 리그 승격 첫해인 2016년에는 종합순위 9위로 중위권의 성적을 거뒀지만 2017년에는 스폰서의 재정 지원 축소, 중국 축구 협회의 돌발적인 정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종합 순위 15위로 강등이 결정됐다. 하지만 연변FC의 이 3년의 여정에 연변 조선족 사회, 중국 대도시 및 해외 체류 조선족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이 반응은 조선족 사회의 기존 네트워크와 연변FC 관련 주요 콘텐츠 생산 매체가 결합해 심화됐고, 위챗(Wechat, 微信)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 사회 및 개인에게 확장됐다. 이 과정을 통해 연변 지역과 다른 체류지역(중국 타 지역 및 해외)의 조선족은 연변FC 응원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생성하며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를 구현하고 있다.

분류한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화폐, 자산 등 교환가치가 있는 경제자본을 의미하지만 브루디외가 문화현상을 교환가치 소유 요소로 파악하는 이유는, 특정 문화적 요소를 소유하는 자체가 다른 문화적 요소의 획득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 증식적 측면(増殖的側面)을 가지기 때문이다. 長谷川公一, 浜日出夫, 藤村正之, 町村敬志, 1997, 『社會學』, 有斐閣, 493 쪽. 문화자본은 타자와 나를 구별 짓고 세습적 요소를 갖는다. 축구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비차별적)문화자본이다. 조선족은 축구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표상하며, 한족과 자신들을 구별할 때 종종 축구를 활용한다. 또한 조선족 사회에서 '축구 서사'는 정부, 학교, 언론, 민간 등에서 전승되고 축적되고 있다.

- 9) 이에 대해서는 이동진, 2013, 앞의 논문; 안성호, 2016, 『문화적 시각으로 보는 조선족과 축구』, 『한국학연구』, 41, 참조. 이동진(2013)은 식민지 시기 간도 지역의 축구의 보급과 확산 및 조선인 정체성 표상 기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정리했다. 안성호(2016)는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인·조선족 사회의 변화(식민지 시기 만주 이주, 한중수교 이후 글로벌 이주)와 조선족 축구 발전사 및 축구를 통한 비연변지역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 현황과 의미를 검토했다.
- 10) 연변 축구팀은 잦은 스폰서 기업 교체로 인해 팀명이 자주 변경됐다. 가령 박태하 감독이 부임한 당시 팀명은 '연변장백산'이었지만, 2015년 부덕(富德)그룹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연변부덕延邊富德'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연변 축구팀은 영문 팀명을 연변 FC(Yanbian Football Club)로 써 왔다. 현재 구단 로고에도 중국어 팀명은 '연변부덕축구구락부(延邊富德足球俱樂部)'로, 영문 팀명은 Yanbian Football Club으로 표기 돼 있다. 따라서 본고는 2015년~2017년까지의 연변 축구팀을 편의상 연변FC로 표기한다.
- 11) 중국 프로축구에서 슈퍼리그는 1부 리그, 갑급(甲級)리그는 2부 리그다. 1부 리그는 총 16개 팀으로 매년 15, 16위는 2부 리그로 강등된다. 2부 리그는 총 16개 팀이며 매년 1, 2위가 1부 리그로 승격한다.

본고는 먼저 연변 조선족이 받아들인 주요한 역사적 압박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재편 과정을 서술하고 해당 시기 조선족 축구의 전개 및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의 에스닉 마이너리티·화와 조선족 사회에서의 축구가 문화자본·화되는 과정을 일별한다. 그리고 현재 연변FC를 둘러싸고 작동 중인 조선족 사회의 ‘자기통치’를 서면인터뷰와 심층면접 등의 질적연구방법과 관련 문헌 분석을 교차해 입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조선족 사회의 네트워크 작동 구조, 에스닉 마이너리티 자기통치에서 빛어지는 조선족의 마음의 맥락을 분석한다. 이로써 조선족의 자기정체성<sup>12)</sup>을 귀속과 지향의 관점이 아니라 구성<sup>13)</sup>과 작동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 II.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 역사적 트라우마와 축구의 문화자본화

### 1.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1945년 8월 해방 당시 만주에는 216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다. 만주국

- 
- 12)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하다. 이중 한중수교 이후 확장된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조선족 귀속의식 분석이 중심이었다. 국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100% 조선족, 디아프소라 성격을 강조한 이중 정체성, 이중 문화성격을 반영한 변연문화론 등이 제기됐다. 일단의 연구들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과거 민족(중국을 조국으로, 한국과 북한을 고국으로 보는 이중 정체성·이중 정체성)의 시각으로 그 내부의 동학과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조선족 연구의 현황의 대략에 대해서는 이성일, 2014,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학논총』, Vol.7 No.1, 참조. 과거 민족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劉稚, 2004, 『跨界民族的類型, 屬性及其發展趨勢』, 『雲南社會科學』, 第5期, 참조. 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명확한 분별은 어렵다. 박종일, 김은정, 2008, 『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검토—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3, 참조. 특히 근원주의적 요소(혈연, 언어, 역사 등)를 스스로 강조하는 조선족의 경우 근원주의적 요소와 구성주의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13) 이정은은 기존 조선족 정체성 연구를 일별하고 조선족의 에스닉 정체성이 국가(중국)의 사회적·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정은, 2010,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대련시 조선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참조.

붕괴 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한반도로 귀환한다. 그러나 약 59만 명의 연변지역 조선인은 귀환을 서두르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 생활기반이 현지에 있었고, 간도지역 조선인을 핵심 정치력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의 적극적 잔류지원책<sup>14)</sup>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5)</sup> 중국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통해 동만 근거지를 확보해 나갔다.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만주척식공사 등이 간도 일대의 중국인 지주에게 토지를 약탈해 조선인 농민에게 소규모로 분배하여 민족 모순을 유발했기 때문이다.<sup>16)</sup> 1946년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연변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은 일종의 정치적 개혁에 가까웠다. 농민들은 토지개혁 과정을 통해 공산당의 존재와 요구를 이해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sup>17)</sup> 연변 조선인은 이 토지개혁을 통해 현지 정착이 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얻고 공산당을 지지했다.

국공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연변 조선인의 지지와 참여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의 신중국에서 정치적 자산이 됐다.<sup>18)</sup> 중국 공산당은 만주 장악이 확실시되자 중국공산당 연변지방위원회(중공연변지위) 명의로 1948년 8월 15일, 중국 경내의 조선인이 중국의 합법적 공민임을 선언한다. 조선인이 곧 성립 될 중화인민공화국의 ‘예비국민’임을 선포한 첫 공식

14) 만주국 붕괴 후 중국 동북지역 정세는 급박하게 전개됐다. 8월 9일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군이 8월 20일 연변을 장악했다. 1946년 3월까지 연변은 소련군정하에 놓이게 된다. 이때 중국공산당은 소련과 함께 대일작전에 참가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키웠다. 동북항일연군의 강신태 등 조선인 혁명가들은 연변에 진출해 연변지방위원회(중공연변지위)를 설립하고 공산당 정권 구축에 전념한다. 공산당 중앙도 인력을 파견해 동북지역 확보에 힘을 쏟는다. 韓俊光·姚作起編, 1991, 『解放戰爭時期的東滿根據地』, 延辺人民出版社, 참조.

15) 李海燕, 2009, 『戰後的『滿州』と朝鮮人社會－越境・周縁・アイデンティティー』, 御茶の水書房, 34쪽.; 延辺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編, 1985, 周保中『延辺朝鮮民族問題(草案)』(1946年12月), 『中共延辺吉東吉敦地委·延辺專署重要文件匯編1(1945-1949)』, 延辺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 333쪽.

16) 雍文濤, 1946, 『吉林解放區公地問題』, 『延辺專署重要文件匯編1』, 101쪽.

17) 田中恭子, 1996, 『土地と權力－中國の農村革命』, 名古屋大學出版會, 421-422쪽.

18) 연변 조선인은 공산당 후방 근거지 건설에 물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에 5만 2천 명이 참전했다. 전사자가 3041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지원이었다. 옹문도, 2002,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던 날에』,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문자자료위원회편, 『돌이켜 보는 력사』(연변문자자료 제10집), 료녕민족출판사, 81쪽.

문건이었다.<sup>19)</sup> 이 시기 연변 지역 조선인은 중공연변지위 서기 주덕해(朱德海)의 주도로 민족적 요구들을 실현해 나간다. 당시 연변은 중국공산당 길림성의 당정 기관이 물러나면서(1948년 3월) 민족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상태였다. 중국 공산당에서 상당한 명망을 갖고 있던 주덕해는 이 기회를 활용했다. 연변 지역의 교육 시스템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이미 구축됐고<sup>20)</sup>, 연변의 귀속문제(한반도 북한)까지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였다.<sup>21)</sup> 조선인은 아직 조선족이 아니었다.

조선인의 주체성을 살린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 연변은 ‘항미원조’ 후방 지원 사업의 최전선이 됐다. 한국 전쟁 초기, 공산당은 연변 조선인 사회에 ‘동북 조선인은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 해방전쟁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연변의 ‘조선인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며 조선족을 전쟁에 동원하고 북한을 지원한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의 동북지역 조선어판 신문은 ‘중국=조국관을 설파했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화법을 바꿔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했다.’<sup>22)</sup>

그러나 1951년 7월, 제 1차 정전협정이 맺어지자 애국주의 및 조국관 시정(是正) 교육이 시작된다. 중국 공민으로의 국가의식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진행한 것이다.<sup>23)</sup> 연변의 현지 조선인 지도자들도 중국 정부의 호소에

19) 洪龍日, 2015, 『在滿朝鮮人から中國朝鮮族へ：包攝と排除の國民統合過程を中心に(1945-1959)』, 東京大學修士論文, 45쪽.

20) 조선인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연변대학은 만주지역에 세 번째로 세워진 종합대학이다. 연변대학은 소수민족 최초의 종합대학이다. 이 시기 연변에는 대학 뿐 아니라 각종 초중급 교육기관이 세워졌다. 洪龍日, 2015, 앞의 논문, 49~52쪽.

21) 洪龍日, 2015, 앞의 논문, 66~67쪽. 당시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과격적이다. 연변의 미래 구상에 소련식 연방공화국, 북조선(북한)으로의 귀속 등이 논의됐다. 현실주의자였던 주덕해는 ‘민족구역자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민족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부 조선인 지도자들의 ‘분리주의’에 가까운 논의는 당시 공산당의 정책에 어긋나는 주장이 아니었다. 이들과 달리 주덕해는 현실적인 민족구역자치를 주장했다. 당시 길림성 민족사무처 처장을 맡고 있었던 그는 이미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시행될 민족정책의 윤곽을 짐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2) 당시 조선어판 공산당 기관지인 『동북조선인민보』에는 ‘조선이 곧 조국이며 ‘조국 보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는 기사가 대량 실렸다. 洪龍日, 2015, 앞의 논문, 58-60쪽.

23)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전쟁 시기 중국공산당이 연변에서 진행한 ‘애국공약

극각적으로 호응했다. 학교 등 조선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애국주의 교육이 강화됐다. 이러한 과정은 곧 실현 될 ‘민족자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윽고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설립됐다. 주석해는 “연변에 집거한 우리 동포들이, 정치에서 평등, 경제에서 번영을 이룩해 부유해지고, 또한 문화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민족문화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가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땅을 일궈 대를 계승해 온 이 땅에서 조선민족의 개성을 영원히 지켜가는 것”이란 표현으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설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신중국의 건국으로 인해 요구되던 국가정체성(국민통합)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민족정체성(귀속의식)을 절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연변조선민족자치구’는 지속되지 못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출범과 더불어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1955년 12월에 개최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제1기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명된 것이다.<sup>24)</sup> 연변의 행정단위 ‘개명’이 파생한 사회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연변조선민족자치구’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로의 개명을 계기로, 중국 공민의 신분임을 나타내는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곧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반우파투쟁이라는 정치운동을 겪으며 연변 ‘조선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1957년부터 시작된 반우파 투쟁 때 조선족은 큰 타격을 받는다. 모택동의 ‘백가쟁명, 백화제방’ 주장에 호응해 민족사회 권익 수호 등을 제기했던

---

운동 때문이다. 애국공약운동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전선 물자 지원 운동으로, 국가·사회가 긴밀하게 연동해 작동했다. 이때 형성된 중국공산당·대중의 네트워크가 정치적 수사의 변화와 전파에 큰 기능을 담당한다.

24) 일부 연구자들은 이 개명이 ‘연변의 지위(地位) 격하’를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區와 州의 행정위계와 포괄범위 때문이다. 李海燕, 2009, 『戰後の『滿州』と朝鮮人社會－越境・周縁・アイデンティティ－』, 御茶の水書房, 186~189쪽. 그러나 당시 주석해가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설립 때부터 1950년대 말의 반우파투쟁 발발 전까지 출간 ‘내몽고자치구’의 수준을 갈망했다는 점,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길림성 정부 산하의 행정단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연변 지도자들이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李海燕 등의 연구자가 언급하는 ‘성급 행정단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洪龍日, 2015, 앞의 논문, 71쪽.

조선족 지식인과 민족간부들은 곧 ‘반당·반사회주의 지방민족주의자’로 몰려 탄압받았다. 수많은 조선족 지식인, 민족간부 등 조선족 사회 엘리트 계층이 공장과 농촌으로 추방 됐고 자살한 이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 정치적 탄압을 받은 ‘조선족 우파분자’는 공식적으로 1006명에 달한다.<sup>25)</sup> 또한 조선족 사회 전체에 ‘한족을 따라 배우고, 한어(중국어)를 학습’하는 운동이 강요됐다. 조선족 학교 등 민족교육 현장의 수업이 모두 한어로 대체됐다.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sup>26)</sup> 당시 조선족은 스스로를 중국국민으로 인식해가며 민족, 문화, 전통 등의 수호에만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전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치·사회적 압박을 받았다. 이 시기를 거치며 ‘조선족’이란 자기 호칭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sup>27)</sup> 이때부터 급진적으로 변한 공산당의 민족정책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공산당 중앙은 1950년대 중반까지 표방했던 스탈린 민족이론을 부정하고, 중국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에 적합한 사회주의민족건설 이론을 제기한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민족은 스탈린의 민족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민족문제의 근본은 계급 문제고, 민족이익보다 계급이익이 우선’된다고 주장했다.<sup>28)</sup> 이런 주장은 문화대혁명기에 이르자 실질적으로는 한족으로의 동화를 지향하는 급진적인 ‘민족융합론’으로 확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1967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의 소수민족에 큰

25) 延辺朝鮮族史編寫小組, 2010, 『延辺朝鮮族史(上)』, 延辺人民出版社, 66쪽.

26) 이에 반발한 일부 조선족들은 북한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중국의 정풍운동이 조선족들의 재이주를 추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종철, 2015,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韓中社會科學研究會』 13권 3호, 참조.

27) 반우파 투쟁 후 연변 조선인 사회의 타자(한족) 인식이 달라졌다. 사회에서 ‘중국인’은 ‘한족’으로 불리게 됐고 일상적 의복 역시 ‘한복’에서 ‘중산복’과 ‘바지(한족 복장)’로 달라졌다. 호칭사용, 복장, 사회분위기 등 변화에 대해서는 정관룡, 1997, 『고향떠나 50년』, 민족출판사, 187~189, 참조. 洪龍日은 연변 ‘조선인’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정착된 것은, ‘조선인’이 스스로를 한반도의 同민족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선인’이 아니라 거주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자 소수민족의 한 구성체인 ‘조선족’임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洪龍日, 2015, 앞의 논문, 77쪽.

28) 王柯, 2006, 『20世紀中國의 國家建設と「民族」』, 東京大學出版會, 242~243쪽.

타격을 줬다. 특히 연변의 경우 모택동의 조카였던 모원신의 주도로 문화대혁명이 전개 돼 ‘문화대혁명 중재구(重災區)’로 지정될 정도였다. 현실적 민족주의자 주덕해가 숙청됐고, 기반이 잡혔던 연변의 민족교육은 소멸 직전에 이르렀으며, 막대한 인적피해를 입었다.<sup>29)</sup> 10년 동안 4,000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장애를 입었으며, 38,000여 명의 민중과 민족간부가 박해를 받았다.<sup>30)</sup>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사망, 4인방의 몰락,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조선족 사회에 깊이 각인됐다.<sup>31)</sup>

연변 조선족 사회는 반우파투쟁을 거치며 자신을 ‘에스닉 마이너리티’로 인식해 갔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주변화됐다. 현대 중국의 정치 변용(국가만들기와 국민 통합)의 압박으로 인한 트라우마<sup>32)</sup>와, 타자(한족)와의 일상적 접촉 과정에서 표출되는 자기-타자 인식 구성의 맥락이 바로 ‘조선족 에스니시타’의 역사적 근간인 것이다.

## 2. 축구, 조선족 사회의 문화자본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조선족의 만주 정착 시기 축구는 민족 표상의 대표 주자로 기능했다.<sup>33)</sup> 조선인이 만주 이주 후 설립한 근대민족교육기관에서 축구를 도입했다. 또한 협업을 위한 통합과 공동체 구축이 요구되는 농경사회의 특성을 가진 조선인 마을의 특성이 축구를 확산시켰다. 신체 단련

29) 주덕해 문제로 조선족 ‘노동자혁명위원회(주덕해 보호파)’와 한족의 ‘홍색조반혁명위원회(주덕해 타도파)’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해 심양군구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다. 조선족 학교의 조선어 사용이 전격 금지됐고, 조선족 교육관계자들은 해고, 처형, 숙청을 겪었다. 허청선, 강영덕, 박태수, 2002,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3』, 연변 교육출판사, 885~893쪽.

30) 延辺朝鮮族自治州概況編寫組, 1982, 『延辺朝鮮族自治州概況』, 民族出版社, 137쪽.

31) 이에 대해서는 박경용, 2017, 「중국 조선족 문화대혁명의 기억과 생활사적 함의-생애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60, 참조.

32) 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크게 일본에 의한 식민 트라우마, 중국으로의 이산 트라우마(이산 과정, 정착 과정, 정치적 탄압), 고향 상실의 아픔, 존재의 망각과 귀환의 좌절 등으로 분류된다. 박영균, 2014, 「조선족들의 역사적 트라우마, 민족과 국가의 이중주」, 『통일인문학』 60, 참조.

33) 이 단락은 안성호(2016)와 이동진(2013)을 정리한 것이다.

과 단합 도모가 필요했던 교육 기관과 사회 특성이 조선인 사회에 축구를 정착시킨 것이다.

<표1> 조선인·조선족 축구 연표(20세기 초~1980년대)

시기	내용
1906년~1930년	<p>민족교육기관을 통한 간도 일대 축구 전파. 조선인 항일운동가들, 간도 지역에서 서전서숙, 광성의숙, 창동서숙, 명동서숙, 정동서숙, 장동서숙 등 근대적 사숙(私塾) 형태의 교육기관을 연이어 세움. 창동서숙, 1908년 러시아에서 건너온 박문호가 축구 전파. 정동서숙, 1910년 독립운동가 노상렬이 축구 교육. 명동서숙, 김약연의 주도로 축구 교육. 간도지역에서 광범한 인기를 획득.</p> <p>신해혁명 후 중화민국 정부의 체육활동 정책이 간도지역 조선인 학교 운동회 활성화 및 체육 증진에 영향을 미침. 조선인 학교, 체육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며 축구 전격 보급화. 이 과정에서 체육·축구는 조선인 사회 결집 및 항일 선전 매개로 활용되기도 함. 운동장 공간을 활용, 운동회 때 빠라·쭈지 등을 활용한 항일 선전(예:1916년 단오절). 학교를 매개로 한 체육 보급이 항일정서와 연동되자 일제의 탄압 시작. 1920년 '간도참변'으로 3664명 조선인 민중 살해, 59개 조선인 학교 전소(全燒)되며 간도 사회 치명적 타격. 특히 체육·축구와 간도 사회의 연결 공간이었던 학교 공간의 부족으로 간도 축구 저조기 접어들.</p> <p>1921년부터 조선인 학교 재건 및 설립 붐이 일어남. 1928년 기준, 만주 조선인 학교는 621개(사립학교 388개)에 달함. 장동서숙, 광동학교, 은진학교 등의 종교계 사립학교 적극적 축구 보급. 사립학교는 학교 별 운동회 뿐 아니라 기타 조선인 학교와 연합 운동회 개최하기도. 가장 중요 종목은 축구.</p> <p>1925년 5월, 연길 국자가에서 최초의 '간도축구운동회' 개최. 일제는 회유책으로 대응해 간도총영사관가 대회를 주최. 이때 조선인 축구 확산.</p>
1931년~1945년	<p>1931년 만주국 발발,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연변 일대는 '간도성(間島省)'으로 편입. 1935년 만주국 체육연맹 간도사무국이 발족(간도총영사가 회장). 이후 간도성 축구대회는 모두 간도사무국 주최. 총 13회의 간도성 축구대회가 개최 됐고, 만주국 체육연맹 역시 10여 회의 만주국 축구대회 개최. 조선인으로 결성된 간도성 축구대표는 모두 9회 우승. 간도체육대회는 단오, 추석 등 조선 전통명절에 개최. 1930-40년대 간도성 축구경기 열풍 뜨거움.</p> <p>'만주제국' 건국 기념일마다 체육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간도 지역 체육 행사 빈번. 특히 1935년부터 1942년까지 용정, 연길 등 조선인 사회의 축구 활성화.</p> <p>1942년 제2회 동아경기대회 축구 만주국팀 17명 중 조선인 선수가 포함 13명(당시 일본팀에도 7명의 조선인이 포함).</p>

시기	내용
1945년 ~ 1949년	1945년 8월 일제 패망. 1946년 1월부터 조선인 학교 재개와 더불어 축구 활성화. 1945년 10월 10일 축구대회 개최(용정). 1046년 연변 각지에서 병합을 통한 학교 재편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축구 활동 잠정 중지. 사회인 축구 활발(1946년 8월 15일 훈춘에서 현 축구대회) 동북지역 국공내전에 따라 축구대회는 전선지원운동과 연동 돼 진행. 1948년 9월 공산당의 만주 장악에 따라 연변 등 후방지역 안정화. 1948년 8월 15일~8월 17일 광복 3주년 연변 전역 축구운동회 개최. 이후 광복절 및 주요 정치일정마다 개최된 축구대회에서 조선족 팀 우수한 성적(1949년 9월 길림성 체육대회에서 연변 대표팀 우승).
1950년 ~ 1969년	1951년 말 중국대표팀 29명 중 조선족 4명 선발. 1953년 중국 청년팀 선발 중 조선족 선발 7명 선발(1954년 4월~1955년 10월 헝가리 유학). 대부분의 선수, 중국 축구계 거목으로 성장. 1955년 길림성 길림성축구팀 설립. 그러나 연변축구 실력의 압도성 때문에 연변 축구팀이 길림성을 대표. 1957년부터 길림성 성도 장춘시 체육국 소속(1961년 다시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소속 바뀜). 1957년 갑급(甲級)리그 7위, 58년 4위, 59년 전국 제1차 운동대회 8위, 60년 4위, 61년 8위, 62년 5위 등 우수한 성적. 1950년대부터 연변은 “중국 축구의 고향(足球之鄉)”으로 불리게 됨. 1965년 전국리그 우승(전국리그 우승 후 동구권 국가를 돌며 국제 친선전 진행).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 시작. 조선족 사회 큰 타격. 감독과 선수가 농촌 및 공장으로 하방 되며 1969년 팀 해체.
1971년 ~ 1980년대	1971년 축구 부활. 중국 국가대표 출신 박만복의 지도로 길림성 축구팀 재활동(전국축구대회 참가). 1980년대 중국 축구 정규리그(갑급리그) 재개. 연변, 중국 축구중점지구(총 16개)에 선정.

출처: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1992), 이동진(2013), 안성호(2016), 연변백두범토크(연변축구 DB)을 토대로 작성.

일제 통치 하 만주 조선인 사회에서 축구는 마을, 학교, 지역의 행사로 발전하면서 결국 민족 행사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축구가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켰다는 사실을 뜻한다.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인 축구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진 것은 만주 조선인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함축한다. 만주 조선인 축구의 발전이 191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운동회였다. 만주 조선인 축구의 발전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운동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학교운동회에 마을 주민이 함께 했다는 사실은, 축구의 정체성 표상 역할의 사회적 조건이 구축 돼 있었음을 의미

한다.<sup>34)</sup> 축구는 좁게는 마을과 학교라는 정체성을, 넓게는 민족(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제공했다. 식민지의 피해자로 살아가던 조선인은 축구를 통해 민족을 상상하고, 조선인 축구팀의 활약을 통해 민족을 표상할 수 있었다.<sup>35)</sup> 특히 간도의 경우 ‘간도체육회’를 통해 간도 지역정체성 창출에 기여했다. 간도는 조선인에게 곧 민족 정체성 그 자체인 지역이었다. 조선인 축구선수들 매개로 조선인 민족 정체성은 확장됐다. 간도에서 축구는 단순한 일상 문화가 아니라 자신을 ‘안전하게’ 표상하는 매개로 작동했다.

신중국 수립 후에도 축구는 유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국공내전 시기 재생된 교육체계는 이런 축구의 ‘표상’ 기능의 혈관이었다. 마을마다 초등학교, 향마다 중학교, 시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각 성(省)에는 민족사범학교가 세워져 민족인재를 양성했으며, 연변에는 연변대학교가 체계적 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축구는 필수적인 핵심 과목이었다. 또한 각 마을에 세워진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공론장 역할과 공동체 의식 고양의 장으로 작동했다. 조선족들은 교육과 지역, 이 두 낱줄과 씨줄을 ‘축구로 교직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민족의식 배양을 혼합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조선족 축구팀은 크게 선진했다. 길림성의 한 부분인 연변팀이 길림성 전체를 대표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1957년), 1965년 신중국 설립 후 최초의 전국 축구리그인 갑급연맹전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축구는 한동안 저조기에 접어들었다. 문화대혁명이 종료되자 축구활동이 회복됐지만 민간 차원의 수준이었다.

이 시기 축구는 조선족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자와 구별하는 문화자본으로 정착됐다. 조선족 사회의 주요 영역과 서사에 축구가 자리했다. 축구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문화로 역할하며<sup>36)</sup> 사회적인 자산이 됐다. 축구는 조선족이 자신을 특정하고, 타자와 구별하며,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field)으

34) 이동진, 2013, 앞의 논문, 346쪽.

35) 이동진, 2013, 앞의 논문, 347쪽.

36) 안성호, 2016, 앞의 논문, 참조.

로 기능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변FC 열풍은 생경한 것이 아니라 '복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고향상실과 조선족 네트워크 형성 : 사회의 급변과 축구의 부침

#### 1. 글로벌 인구이동과 조선족 네트워크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그에 따른 사회 재편을 겪게 된다. 이 시기 조선족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타 대도시와 해외로 활발하게 이주했다.<sup>37)</sup> 1980년대 중후반부터 친지방문 형태로 한국에 입국하던 조선족은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인 한국 이주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족 농촌공동체 상당수가 해체되고 지역재개편(합병) 등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상적 민족 문화 공간이었던 농촌의 약세는 조선족의 전통과 문화적 특질이 잠재할 수 있는 매개의 약화를 뜻하기도 한다.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유출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며 농촌지역에서의 여성 인구 유출에 따라 성비 불균형 문제 등이 생겨났다. 또한 인구유출로 인해 학령아동수가 감소하고 조선족 학교의 학생이 감소 돼 민족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농촌을 기반으로 구성된 중국 조선족 공동체와 정체성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다.<sup>38)</sup>

37) 연변의 조선족 및 해외 조선족의 구체적 수치는 정확하게 집계하기 힘들다. 각국 출입국 관리 관련 기관의 통계로는 '빈번한 이주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조선족 규모는 한국 63만(2015년 법무부 통계연감), 일본 7~8만, 러시아, 유럽, 북미지역 각 5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해외 체류 인구가 조선족 전체 인구 183만 명(2010년 기준)의 40%를 상회하고 있다. 20여 년간 조선족 총인구의 45%, 노동력의 70% 정도가 이동했다. 중국 내 비연변 지역 체류, 중북이주, 다발성 이주(정착 공간의 중첩, 이주 경험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38) 이주는 필연적으로 '타집단과의 집거와 교류를 전제한다. 198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 사

신중국 수립 후 경험한 정치적 주변화에 이어 경제적 주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족의 대응은 바로 '네트워크'였다. 네트워크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연결망'을 상징하고, 단체(집단) 네트워크는 상호 의존으로 구성되는 단체들 간의 연결이며, 사회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 맺는 사회적 공간이다.<sup>39)</sup> 이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해외조선족 실태를 연구한 김홍매(2014)는 조선족의 대규모 분산이동을 민족사회의 해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 반대한다.<sup>40)</sup> 오히려 조선족의 이주가 탈지역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다원화된 민족사회로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조선족 사회 내 단체활동 역시 지역중심이 아니라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있는 단체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조선족 단체 간 네트워크는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김홍매는 해외 조선족 네트워크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별하여 설명했다.<sup>41)</sup>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현지 생활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는 체류지역이 아닌 '조선족'을 키워드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는 '속지주의(屬地主義)'에 가깝고, 후자는 '속인주의(屬人主義)'에 가깝다. 이 양자는 분리 작용되는 게 아니라 상호 작용한다. 한 조선족 개인이 이동할 때 그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작용도 가능하다. 조선족 네트워크는 조선족들이 '국가 단위'가 아닌 '조선족 단위'로 삶을 구성하는 현상이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선족 네트워크 구축에서 축구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 상술했듯이 조선족들은 조선족 축구팀의 선전에 따른 정체성 표상과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 배치된 축구 문화를 체험·체화한 상태였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일상에 내포된 축구는 인구이동과 함께 새 이주지에서도 작동했다. 축구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됐다.<sup>42)</sup> 일정한 규모를 가진

회의 특징은 '조선족 집거지'로 대변되는 민족 공동체였다.

39) 임채완 외, 2008, 『재외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북코리아, 39~40쪽.

40) 김홍매, 2014, 『조국기 시대 해외조선족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1호.

41) 김홍매, 2014, 앞의 논문, 41~45쪽.

도시에서는 동호회, 향우회 등에서 출신 지역을 단위로 하는 축구팀을 구성해 지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도 한다. 조선족들이 집거하는 곳은 다양한 축구팀, 축구 협회, 축구동아리 등의 조직이 형성됐으며 정기적으로 축구 리그와 조선족 운동회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는 북경, 청도, 광둥성 등 중국 내 대도시 뿐 아니라 해외 조선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족 사회 모두 자체적인 축구 리그를 진행하고, 관련된 협회와 기관을 만들어 운영한다.<sup>43)</sup> 축구 경기를 뛰는 것은 남성이지만, 조선족 사회에서 축구는 남녀·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에 가깝다. 축구는 조선족 네트워크에서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가족 간 교류, 지역 공동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는 매개 문화다. 그리고 최근 이 축구 네트워크에서 대화의 핵심 주제는 바로 조선족 축구팀이다.

## 2. 중국 프로축구의 출범과 조선족 축구의 부침

이 시기 중국 프로축구가 출범, 발전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스포츠 대외 교류도 활발해졌다. 중국은 서구의 스포츠 이념, 프로스포츠 훈련, 프로 구단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초 속에 중국축구협회는 1992년 베이징 홍산커우(紅山口)에서 회의를 열고 축구 프로리그 출범을 논의하게 된다. 중국 축구협회는 '축구의 프로화'를 축구 개혁의 돌파구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및 행정기관의 주도 하에 있었던 축구를 시장화와 프로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였다.<sup>44)</sup> 이후 중국 축구협회는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4년에 프

42) 이에 대해서는 안성호, 2016, 앞의 논문, 382~385쪽 참조.

43) 일본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조선족을 주축으로 한 축구팀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제일 조선족 축구 협회가 생겼고 2017년에 일본 법무국이 공인하는 일반사단법인 단체로 재조직되었다. 『중앙인민방송 중국조선어 방송넷』, 2017. 11. 27, 『축구공으로 맺어진 제일조선족축구 협회 사단법인 설립 축하파티 대성황 이루어』, 제일조선족축구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연변FC 관련 공문장 기능과 제일조선족 사회의 축구 네트워크 인터넷 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44) 費加明, 2013, 『審視与反思：中国足球職業化20之年經驗与教訓』, 『南京体育学院學報』 Vol.27 (No.5), 119~120쪽.

로리그를 출범시켰다. 중국 프로리그 첫 단계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됐다. 당시 1부 리그는 갑A리그, 2부 리그는 갑B리그로 구성됐다. 정부의 지원 및 개입과 언론의 대대적 홍보와 함께 축구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열기도 높아져 갔다. 하지만 프로리그에 대한 낮은 이해, 짧은 준비 기간,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구단의 재정 위기와 잇따른 국가대표팀의 부진(1996년 올림픽 본선 실패, 1998년 월드컵 진출 실패), 근절되지 않는 심판 매수 및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 등이 겹쳐 축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급감했다.<sup>45)</sup>

2004년, 중국은 중국슈퍼리그(CSL)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중국은 프로연맹 구단이 주도적으로 팀과 리그를 운영해서 국가 체육국 등의 정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管辦分離) 완전한 시장화로 축구 선진화와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 축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기존의 문제와 새로운 대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운영과 내용 모두 혼선을 빚었다. 주요 스폰서기업이 중국 프로축구에서 이탈했고, 국가대표팀은 여전히 부진했으며, 프로축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저하됐다. 그러자 2010년부터 중국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된다. 공안기관에서 축구 관련 승부 조작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축구 관련 부패 인사들이 축출됐다. 또한 2008년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중국의 대기업들이 다시 프로축구로 돌아왔다. 2010년 3월, 헝따그룹(恒大集團)이 1억 위안으로 광주FC를 인수해 광주 헝따FC(廣州恒大足球俱樂部) 팀을 발족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2011년부터 중국 축구는 제도적·경제적으로 회복됐고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45) 郁 静·李協榮·潘紅軍, 2000, 『韓國, 日本, 中國足球職業化發展的比较研究』, 『北京体育大学学报』 Vol.23(No.4), 548쪽. 이 시기 연변축구는 변방의 소수민족 팀으로 특히 '검은 호르라기(黑哨)라 부르는 부정행위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 특히 프로축구 출범 초기였던 1998년 갑A리그 시절에 심판 매수에 의한 피해는 극에 달했다. 거듭되는 부정 판결로 역전패를 당하자 당시 연변오동 팀 주장 고종훈은 중국 국영방송 CCTV 중계카메라를 향해 '중국 축구는 희망이 없다(中国足球沒戲了)'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경구는 아직도 중국 축구계에서 종종 회자되며 축구 관련 중국 언론 보도에 인용되고 있다.

축구 애호가로 알려진 시진핑은 영국과 독일 같은 유럽의 축구 선진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프로구단을 방문한다. 2014년 7월 독일 방문 때에도 독일 총리 메르켈과 함께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온에서 중국-독일 청소년 친선전을 관람했고, 2015년 영국 방문 때는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함께 맨체스터시티FC를 방문했다.<sup>46)</sup> 대외적 행보 뿐 아니라 국내 정책 영역에서도 축구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27일, ‘중공중앙 전면 심화개혁영도소조(中共中央深化改革領導小組)’<sup>47)</sup>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축구개혁총체방안(中國足球改革總體方案)’을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핵심지도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과 체육강국몽은 직결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sup>48)</sup> 또한 2017년 6월, 시진핑은 중국을 방문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에게 “체육대국, 체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두 개의 백 년’ 목표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축구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축구의 본질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의 체질을 증강하고 인민의 애국주의, 집단주의, 강력한 정신력의 향상에 자리한다.”고 말했다.<sup>49)</sup>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프로화를 추진하던 중국 축구는 아직 중국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관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시진핑 정권의 슬로건인 ‘중국몽(中國夢)’과 긴밀하게 연결 돼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중이다.<sup>50)</sup> 중국 프로축구는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이라는 두 축의 교직을 통해 작동한다.

46) 『人民网』, 2015.10.24., 『習近平訪英參觀曼城足球俱樂部 獲贈1号球衣』.

47) 2013년 12월 30일에 결성됐다. 시진핑 주석이 영도소조 조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생태문명·당건설제도 등 중국 개혁의 전반을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핵심 지도단위다.

48) 『人民网』, 2016.2.22., 『習近平總書記的體育情懷』.

49) 『新華網』, 2017.6.14., 『習近平會見國際足聯主席因凡蒂諾』.

50)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스포츠를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 고양의 도구라는 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기조를 밝혀왔다.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과 관련한 중국 사례 검토에 대해서는 정기웅, 2008,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재고찰—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2 참조.

이 시기 연변 축구팀은 많은 부침을 겪었다. 연변 축구팀은 중국 축구 프로리그 출범 초기 삼성, 현대 등을 스폰서로 두고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다. 특히 1997년에는 한국인 최은택 감독을 중심으로 1부 리그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한중 수교 직후 긴밀해 진 연변 조선족 사회와 한국의 관계가 축구에서도 보였다. 1998년 현지 제약회사 길림오동(吉林敖東)그룹이 연변 축구팀의 후원 구단이 됐다. 최은택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1998년 초에 경질 됐지만, 당시 연변 축구팀은 ‘거물사냥꾼’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강팀들에게 승리를 거두며 조선족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부정부패 등이 판쳤던 당시 중국 프로리그에서 변방의 소수민족 팀인 연변 팀은 많은 피해를 당하며 점차 순위가 떨어졌고, 2000년에는 절강성의 절강록성(浙江綠城)에 팀이 매각되기에 이른다. 유소년팀과 2군을 모아 재기를 시도하지만 2014년까지 3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전전하며 과거와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2014년에 잦은 감독교체 등의 풍파로 3부 리그로 강등된 연변 축구팀은 2부 리그 재승격을 위해 전 한국국가대표 수석코치 박태하를 감독으로 초빙한다. 그때 행운이 찾아왔다. 2부 리그 광둥일지천(廣東日之泉) 팀이 합병 과정에서 2부 리그 참가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래서 박태하 감독은 2부 리그에서 본인의 첫 시즌을 출발했다.

<표2> 연변 축구 연표(1990년대~2017)

시기	내용
1993년	제7차 전국운동대회에서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여 최종 5위의 성적을 거둬.
1994년	중국축구 프로리그 출범. 중국 최초로 외국자본(한국 삼성)의 스폰을 받아 길림삼성(吉林三星)이란 팀명으로 중국 축구 리그에 출전(1994년부터 7년 동안 1부 리그인 갑A 리그에서 활약).
1995년	한국 현대자동차의 스폰(2년)을 받아 연변현대(延邊現代)로 팀명 변경. 연변조선족자치구를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성장.
1997년	프로리그 출범 후 1부 리그에서 최고 성적인 리그 4위·FA컵 3위(한국인 최은택 감독).

시기	내용
1998년	현지 제약회사 길림오동그룹(吉林敖東集團)의 스폰을 받고 팀명을 연변오동(延邊敖東)으로 변경. 갑A 리그(1부 리그) 출전. 초반 성적 부진으로 최은택 감독 경질. 코치 고훈이 사령탑. 강팀들을 연이어 제압해 거물사냥꾼(巨人殺手)이란 별명이 붙음. 그러나 변방 소수민족 팀이란 구조적 제약 때문에 심판의 부정 판정과 승부 조작 등의 피해를 받음.
1999년	팀명을 '길림오동(吉林敖東)'으로 변경.
2000년	2부리그인 갑B 리그로 강등. 팀 재정악화로 갑B 리그 자격과 1군 선수들을 절강록성(浙江綠城)에 매각.
2001년 ~ 2003년	연변팀, 유스팀 및 2군 선수들로 팀 재정비(북한에서 전지훈련)하고 3부 리그에 머무름.
2004년 ~ 2011년	기간 전체 2부 리그 전전. 2004년, 연변팀 2부 리그로 승격. 중국 축구 리그 개편(갑A 리그->슈퍼리그, 갑B 리그->갑급리그). 팀 이름을 연변세기(延邊世紀)로 바꿈. 2007년, 북한 국가대표팀 현역 선수 4인(김영준, 김명철, 김성철, 서혁철) 영입. 2011년, 팀명을 연변장백호랑이(延邊長白虎)로 변경.
2014년	3부 리그 강등. 팀명을 연변장백산(延邊長白山)으로 변경. 우장룽 총경리(구단 사장) 취임. 을급리그(3부 리그)로 강등.
2015년	한국인 감독, 코칭스태프, 선수 영입(감독 박태하, 수석코치 오명관, 비디오분석관 김혁중, 공격수 하태균 등). 2부 리그 결원 발생으로 자동 승격 및 2부 리그에서 시즌 시작. 2015년 기적적인 2부 리그(갑급리그) 우승으로 1부 리그(슈퍼리그) 승격 결정.
2016년	중국 광둥성 소재 부덕보험그룹(富德保險集團)이 구단 인수(지분 70%). 팀명을 연변부덕(延邊富德)으로 변경. 승격 이후 대비해 코치 및 선수 영입(한국인은 이임생 수석코치, 윤빛가람, 김승태 등). 겨울 전지훈련을 중국 남방, 한국, 일본 가고시마 등에서 진행. 승격 첫 해 9위로 마감.
2017년	메인스폰서 부덕 그룹 지원 급감(계약 파기 협상 중). 1부 리그 승격 2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 약 20년 만에 연변FC에서 중국 국가대표 3명(지충국, 지문일, 최민) 배출.

출처: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1992), 이동진(2013), 안성호(2016), 연변백두범통감(연변축구 DB)을 토대로 작성.

2015년부터 연변FC 열풍이 시작됐다. 겨우 2부 리그에 잔류한 연변FC는

5월 30일 선두 대련 팀을 제압하고 리그 1위로 올라선다. 변곡점이었다. 조선족 사회는 열광했다. 연변, 중국 타 도시, 해외를 불문하고 연변FC 경기가 있는 날은 월드컵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길인민경기장에는 평균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섰고, 연변 식당들에는 축구를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연변FC 열풍이 연변의 풍경까지 바꿔놓은 것이다. 10월 24일, 연변FC는 홈에서 호남상도팀을 4:0으로 제압하고 갑급리그(2부 리그) 우승을 결정지었다. 축구장에 ‘연변인민의 영웅 박태하라는 거대한 현수막에 걸리고, 한편에는 최은택 감독과 박태하 감독이 함께 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다. 연변축구의 ‘대부’로 불렸던 최은택 감독과 박태하, 두 한국인이 나란히 연변을 수놓았다. 슈퍼리그 승격 후 박태하 감독은 연변FC와 재계약(2년)을 체결했고, 슈퍼리그 승격 첫 해인 2016년에는 9위의 성적을 거뒀다.

<표3> 중국 프로축구 구단 규모 비교(2016년 기준)

구단	연고지	연고지 인구	연고지 GDP	홈구장 평균관중	CSL 순위 2016/2017	1년 예산
광저우恒大 (广州恒大)	광둥성 광주	1404만	20000억 위안	44883명	1위/1위	약 10억 위안
상하이선화 (上海申花)	상해	2415만	26688억 위안	22690명	4위/11위	약 10억 위안
장춘야타이 (长春亚泰)	길림성 장춘시	753만	5382억 위안	15202명	12위/7위	약 4.5억 위안
연변푸더 (延边富德)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54만	900억 위안	19305명	9위/15위	약 2.5억 위안

출처 : 바이두 백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조선족 사회의 연변FC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연변FC 구단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슈퍼리그 팀 대부분이 인구규모가 방대한 대도시에서 연고지를 두고 막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한다. <표3>을 통해

연변FC의 조건이 중국 프로축구의 유명팀인 광저우헝다·상하이선화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쟁팀이자 2선 도시를 연고지로 삼는 장춘야타이에도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상당한 열세를 가진 연고지 인구나 연고지 GDP에도 불구하고 연변FC는 선전을 펼쳤고, 이는 정치적 주변화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는 조선족 사회에게 자긍심과 동일시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연변FC가 2017년 부덕그룹의 지원 급감 및 팀 내외 문제들로 인해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여전히 조선족 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이유다.

#### IV. 연변FC와 조선족의 자기통치: 작동과 마음

지금까지 조선족의 주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사회 변동의 주요 변곡점, 그리고 그 시기를 관통하며 조선족의 ‘문화자본’으로 발전한 조선족 축구, 중국 축구 프로리그와 연변FC의 활약에 대해 일별했다. 본 장에서는 조선족이 연변FC 현상(2015년~2017년)에서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메커니즘(mechanism)과 그 과정에서 작동 중인 조선족의 마음<sup>51)</sup>을 검토한다.<sup>52)</sup>

51) 김홍중은 ‘마음(heart)’, ‘마음가짐(heartset)’, ‘마음의 레짐(regime of the heart)’ 등의 개념을 정의해 마음의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마음(heart)’은 사회적 실천을 발생시키고 그 실천을 통해 작동(생산, 표현, 사유, 소통)하며, 그 실천의 효과들을 통해 항상적으로 재구성되는, 인지적/정서적/의지적 행위능력(agency)의 원천이다. ‘마음가짐(heartset)’은 마음 작동을 규정하는, 공유된 규칙과 규범의 총체다. ‘마음의 레짐(regime of the heart)’은 마음의 작동과 마음가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조건 짓는 사회적 실정성(이념들, 습관들, 장치들, 풍경들)의 특정 배치다. 마음은 순수하게 개인의 내적 현상들로 체험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마음가짐이라는 공유된 규제 하에서 작동되며, 또한 마음의 레짐이라는 사회적 제도들의 틀에 의해 구성된다. 마음은 ‘역능’이고, 마음가짐은 규칙/규범, 즉 구조이며, 마음의 레짐은 경험적 현실의 배치, 즉 ‘아장스망(agencement)’이다. 김홍중, 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 제4호, 184~185쪽.

52) ‘조선족의 자기통치’는 정체성 이론으로만 도해할 수 없다. 구조, 국가, 사회의 지시 및 강조가 체계적으로 개인을 포섭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홍중이 정의한 마음에 가깝다. ‘마음의 사회학’을 연구에 응용한 김성경(2016)은 마음의 개념을 1)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의 작동방식에 따라 변형되어 다시금 외부와의 상호작용

본 논문은 축구에서 구현되는 조선족의 자기통치의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응용·활용하였다. 적극적으로 연변FC 관련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5명에 대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up>53)</sup>과 일상 문화로 축구를 소비하는 일반 팬의 범주에 속하는 17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인터뷰를 실시했다.<sup>54)</sup>

심층면접·서면인터뷰 대상자는 연변 거주자, 중국 내 대도시 거주자, 해외 거주자 모두를 포괄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가졌다. 주 연령층은 연변 축구팀이 프로에서 활약했던 시기를 체험했고 기억하며 현재 연변FC 응원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20대 후반~40대 초반이다.<sup>55)</sup> 심층면접·서면인터뷰 내용은 주요 언론 보도 및 공간(公刊)문헌과 교차 검증하였다.

심층면접과 서면인터뷰 질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했다.<sup>56)</sup> 축구에 대한 기억과 체험에 관한 질문으로 조선족 축구의 문화자본화 여부를 확인했다.

을 만들어내는 행동의 자원 2)행동되지는 않지만 태도, 시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까지 포함하는 범주(마인드)로 조작화한 후, 이를 북한 주민의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활용한 바 있다. 본고는 축구를 조선족이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 공간에서 다시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서와 지향을 '마음'으로 종합해 서술한다. 김성경, 2016,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 155~156쪽 참조.

- 53) 논문 설계를 위해 심층면접 대상자 5명·서면인터뷰 대상자 수 명과 분할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논문에는 최종 서면인터뷰와 개별 심층면접의 내용만을 활용한다.
- 54) 심층면접자와 서면인터뷰 대상자의 유형을 대체적으로 분류한 이유는 서면인터뷰(일반 팬)를 통해 연변FC에 대한 조선족의 기초 정서를, 심층면접자(적극적 팬)를 통해 연변FC를 통한 조선족의 문체식과 지향을 대비(對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면 문제로 서면인터뷰 결과는 비교적 정량적 분석에, 심층면접 결과는 구성적 분석에 활용한다.
- 55) 현재 연변, 중국 대도시, 해외 거주 조선족 네트워크의 핵심 주축은 30~40대다. 이들은 각 사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작동 방식을 선도하며 조선족의 자기통치를 구현하고 있다. 연변FC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이들의 의미화를 이해하는 작업은 이후 조선족 사회의 자기구성을 전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연변 조선족의 경우 정체성의 문화배경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비연변지역 체류 경험 유무와 세대 차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연변을 주도하는 '20대 후반~40대 초반 비연변체류경험자 및 비연변지역체류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해당 간극을 극복하고자 했다.
- 56) 심층면접과 서면인터뷰에 정치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배치하지 않았다. 자기통치는 국가 및 외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비의도적 집단전략이다. 그러므로 정치 관련 질문에는 자기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답변의 적실성이 더 낮을 확률이 높아 오히려 자기통치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변FC 열풍과 조선족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으로 조선족 사회(마음)와 연변FC의 상호작용을 검토했다. 연변FC 박태하 감독과 연변FC를 집중 취재·보도한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인상에 대한 질문으로 조선족이 희망하는 한국인 형상과 마음을 도해했다. 연변FC(2015년~2017년) 관련 주요 매체 및 응원 참여 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조선족 사회의 네트워크 작동 방식을 분석했다. 심층면접은 4부분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질문을 변용하며 진행했고, 서면인터뷰는 4부분에 문제의식에 기초한 세부 계열 질문들을 배치했다.

<표4>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1 : 서면 인터뷰

	나이	성별	고향	현재거주지	직업	참고
A	27	남	중국 연변	미국 펜실베니아주	대학원생	
B	33	남	중국 길림성 용정	중국 북경	IT업계	
C	30	여	중국 길림성 훈춘	일본 사이타마현	회사원	
D	35	남	중국 길림성 용정	길림성 용정시	교사	
E	29	남	중국 길림성 용정	길림성 용정시	공무원	축구 관련 커뮤니티 관리
F	29	남	중국 길림성 연길	일본 오사카	일본 프로축구 구단 직원	
G	35	여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sup>57)</sup>	중국 상해	작가	
H	35	여	중국 길림성 용정	중국 길림성 연길	도서편집	
I	34	남	중국 길림성 용정	중국 길림성 연길	작가	라디오 방송 진행자
J	41	여	중국 길림성 연길	싱가포르	주부	
K	40	여	중국 길림성 안도	중국 길림성 연길	교사	

57)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는 주도(州都) 연길시(延吉市)와 도문시(圖們市), 둔화시(敦化市), 용정시(龍井市), 훈춘시(琿春市), 화룡시(和龍市), 왕청현(汪淸縣), 안도현(安圖縣) 등 여섯 개 현급시와 2개 현으로 구성 돼 있다. 서면인터뷰 신청 기재란에 구체적 지명을 특정하지 않고 '연변'이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나이	성별	고향	현재거주지	직업	참고
L	33	남	중국 길림성 연길	중국 상해	영업	
M	36	남	중국 길림성 연길	중국 길림성 연길	무직	축구 관련 라디오 출연
N	30	남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개인사업	
O	33	남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길림성 연길	공무원	
P	33	남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길림성 연길	회사원	
Q	35	여	중국 길림성 왕청	중국 강소성 소주	회사원	

〈표5〉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2 : 심층 면접

	나이	성별	고향	현재거주지	직업	면담일	참고
ㄱ	30	남	중국 길림성 용정	일본 도쿄	대학원생 (農工전공)	2016.9.10 2017.8.5.-7	커뮤니티 적극 활동
ㄴ	32	남	중국 길림성 용정	중국 길림성 연길	회사원	2017.8.25.-6	커뮤니티 적극 활동
ㄷ	43	남	중국 길림성 연길	중국 길림성 도문	회사원	2017.9.4.-8	커뮤니티 적극 활동
ㄹ	34	남	중국 길림성 연길	중국 길림성 연길	개인사업	2016.10.5 2017.8.27	커뮤니티 적극활동
ㅁ	29	남	중국 길림성 화룡	중국 상해	개인사업	2016.8.27	커뮤니티 적극활동

### 1. 축구와 조선족: 기억과 체험

상술했듯이 조선족 사회에서 축구는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자신을 구성하고 타자와 구별 짓는 ‘문화자본’이었다. 조선족 축구팀의 선전과 활약에 자신을 투영시켜 결집했고, 교육기관(학교)을 중심으로 축구를 일상문화로 수렴·지속했으며, 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유지에 축구를 활용해왔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서 축구에 대한 기억과 체험은 조선족 아비투스(habitus)<sup>58)</sup>

58)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이성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기회와 제한의

에서 큰 비중을 갖는다.

서면인터뷰 대상자 17인과 심층면접자 5명 모두 축구에 대한 기억 혹은 체험을 가졌다. 기억은 대체로 조선족 축구팀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최은택 감독 시절(1997년)과 상위권 팀들에게 승리를 거두며 ‘조선족의 매운 맛을 보여’(ㄷ)주던 시기였다. 본인과 가족 모두 축구에 큰 관심이 없다는 C 역시 “그때는 생방송도 거의 없고 신문이나 라디오로 경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딱 한번 가봤는데 관객이 너무 많아서 깔려죽는 줄 알았어요. 경기 끝날 때 하던 과도타기가 너무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이 시기를 ‘열광’으로 기억했다. 경기장을 자주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감독, 선수,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잦았으며 친구들과 축구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반추한다. 동네에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집에 모여 맥주 사다놓고 티비로 중계를 시청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P)고 답하기도 했다. 인터뷰·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10대 초중반이었으므로 축구와 민족 상황을 연계해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조선족 축구팀의 선전에 ‘뿌듯함’(ㄷ)을 느끼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암흑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2000년에 10대 초반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 이야기 나오면 어두워지는 가족 분위기’(F) 정도로 어렵풋하게 그 시절을 연상했지만, 당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었던 사람은 ‘매우 가슴 아팠다. 가난한 팀의 비애다’(G, H, K)라고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기억했다. 부진의 원인을 ‘소수민족이 잘되는 걸 못 봐주는 한족들의 본심, 무능하고 가난했던 연변축구의 책임, 연변의 자존심을 팔아서 푼돈을 챙기려는 한심한 작자들이 정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에 생겼던 아픈 역사’(I)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분개하기도 했다.

공간들과 전통의 결과물로 구성된 지속적인 성향(durable dispositions)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성물로 정의한다. 김성경, 2017,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친밀성의 재구성 과 수치심의 기능성』, 『문화와 사회』, 23, 282쪽 참조. 조선족 아비투스(= 축구를 ‘민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문화’ 등으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이주로 축구에 대한 아비투스를 변용·재구성하게 된다. 이 변용과 재구성의 작동 원리에 자기통치가 자리한다.

연변FC 응원의 맥락은 크게 1)어릴 적 축구를 응원하던 기억과 경험 때문  
 2)2015년 이후 멋진 경기를 펼쳤기 때문으로 나뉘었다. 1)의 경우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인터뷰이들이었고, 2)의 경우는 30대 중반  
 이하 연령층 혹은 여성 인터뷰이가 많았다. 1)의 경우는 축구를 어떤 감정  
 의 '원인'으로 상정했다. 조선족 축구가 성적이 좋을 때 변화했던 주변의 기  
 역(가족 및 마을)이 강하게 잠재했던 양상을 보인다. 2)의 경우 축구를 스포츠  
 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성적에 따라 응원의 강도가 달라졌  
 고, 중계 시청 및 관련 팬 활동의 빈도가 변한다고 이야기했다.<sup>59)</sup>

## 2. 연변FC(2015~2017) 열풍과 조선족 사회

연변FC의 선전과 그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반응은 글로벌이주 과정을 통  
 해 활성화 돼 있던 조선족의 기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확장시켰다. 조선  
 족의 문화자본인 축구는 이미 연변지역 뿐 아니라 조선족 집거지(중국 타지  
 역, 해외)의 중요한 네트워크 매개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근 연변FC가 활약하  
 자 이 네트워크의 내부는 보다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연변FC의  
 활약은 다양한 타자와 접합해 살아가는 조선족들의 자부심을 강화시켰다.  
 한국인·한족 등의 타자에 대한 입장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연  
 변FC 문제에서 한족에 대한 시선 및 이해는 에스니시티에 기초한 연변 지  
 역주의의 성향을 보인다.

서면 인터뷰이 22명 중 19명, 심층면접자 전원이 연변FC 열풍으로 자부  
 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력과 연  
 고지 규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연변FC 뿐 아니라 많은 조  
 선족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sup>60)</sup> 중국 타 지역 및 해외 사회에서 조선족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연변FC의 조건과

59) 총 22명의 인터뷰이 중 17명이 1)의 범주에 속하고 5명이 2)의 범주에 속한다.

60) 현재 연변FC 외에 15명의 조선족 선수가 슈퍼리그와 갑급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중  
 국 프로축구계 전통 강호인 베이징 귀안의 미드필더 3명은 연변 출신 혹은 연변FC에서  
 이적한 조선족 선수들이다.

성취를 조선족의 정치·경제적 주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과 동일시했다. 많은 조선족들이 연변FC로 조선족 사회를 도해하고, 그 결과를 자기화하고 있는 것이다.<sup>61)</sup> 또한 연변FC 관련 문제의식이 ‘정치요구활동’의 불가능성’에 일부 기초한다는 사실은, 조선족 사회가 연변FC를 주변화된 자신의 주체 작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최근의 연변FC 열풍은 조선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의미 짓기’ 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자기통치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 (1) 연변FC와 연변 조선족 사회

연변FC의 선전은 조선족 사회의 풍경을 바꿨다. 연변FC가 활약하자 연길 시내의 많은 음식점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연변FC 경기가 있는 날은 연변 전체가 들썩였다. 한국의 ‘붉은 악마’처럼 전문적인 응원팀들이 만들어졌고, 연변FC 유니폼을 입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연변FC 선전 이후 지역 축구팀의 활동도 증가했다.

요새 연길에서 축구는 제일 핫한 테마지요. 거의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골수팬들이야 옛날에 저조기에도 축구 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적 떨어지니까 거의 뭐...그땐 평균 관중이 5,000명 정도 밖에 안된 거 같고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거의 매 경기 매진 됐어요. 식당이나 찻집(꼬치집)에 큰 티비 걸어두고 중계보고. 골수팬들은 이런 거 좀 반감 갖기도 했어요. 진짜 응원은 가서 봐야지. 표도 팔리고(ㄴ, 남, 32세).

연변FC는 조선족 사회에서 고향강화의 기제로 작동한다. 연변 체류 조선족들은 연변FC 응원을 통해 타지 조선족들과 소통하며 고향을 다시 재인식

61) 연길시 시장 조철학은 “연변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자연적으로는 응당 장백산이고 문화적으로는 응당 축구가 첫째이고 다음은 노래와 춤이다...중략...다년간 연변축구는 그 자체가 명표로 부상한 것만은 사실이다. 간고한 환경과 자금난속에서 연변축구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연변의 지명도를 높였는바 연변인민들은 감격해마지않는다.” 라고 말했다. 『길림신문』, 2017.1.10., 『축구는 연변의 첫째가는 문화』이 정서는 2015년 갑급리그 우승 후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을 모아 출판한 『나와 연변축구』에서도 줄곧 발견된다.

한다. '타지의 조선족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이 고향팬들보다 더욱 깊고 절절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H)'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연변의 조선족 사회 상당수가 타지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서는 매우 강하며, 연변 FC 응원을 통해 타지 조선족과 연결되는 것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

심층면접자 ㄴ, ㄷ, ㄹ은 타지에서 연변으로 귀향했다. ㄴ은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상태에서 귀향했고, ㄷ은 상해에서 회사생활을 하다가 연변으로 돌아왔으며, ㄹ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향 후 창업했다. 이들은 비교적 강한 에스니시티를 갖고 있었다. 특히 ㄹ은 귀향과 창업의 이유를 "연변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일할 자리 없어서 못 돌아오는 조선족들 많습다. 나도 옛날에 그랬던 거 같고.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만들어서 연변에 발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혔다. ㄴ에 따르면 최근 귀향하는 젊은 조선족들이 점증하고 있다. ㄴ은 그 이유를 고속철 등 교통 인프라 개발로 대도시-연변차이주의 접근성이 높아져 연변의 사업기회가 늘어났다는 물질적 조건 개선과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정서적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ㄴ 역시 귀향한 이후 가장 즐거운 일로 '경기장에서 조선족 친구 만나는 것, 응원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인연들과의 교류, 타지에서 느꼈던 외로움의 해소, 좀 더 당당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기분'을 꼽았다. 타지에서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이 고향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조선말을 하며 조선족 팀을 응원하며 해소된다는 것이다. 현재 연변FC는 타지에서 귀향한 조선족들에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있다.

## (2) 연변FC와 중국 타 지역 및 해외 조선족 사회

중국 내 비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사회에 연변FC의 선전은 매우 중요하다. ㄹ은 상해에 거주한다. 그는 상해의 조선족 네트워크 핵심이 축구라고 말했다. 상해 지역별 축구팀의 경기, 회식, 친목회 때 경기를 뛰는 남성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참여해 네트워크를 지속한다. 상해 조선족 사회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축구를 좋아하고<sup>62)</sup>, 따라서 연변

FC 활약으로 축구 관련 모임이 늘어났다.<sup>63)</sup> 연변FC 활약은 그에게 자긍심을 줬다. 상해 현지 한족들에게 자신이 조선족이라고 밝히면 바로 축구 이야기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일부 한족들이 ‘중국 국가대표팀에 왜 조선족을 뽑지 않냐’라고 말할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ㄷ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원래 조선족들보고 음주가무 잘 하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했거든요. 술 좋아하고 잘 노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강도 있고 대단하다 그런 이미지로 좀 바뀌는 거 같고. 한족들한테 자부심 가지는 중심이지요. 축구가.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연변 축구 규모가 작거든요. 다른 프로팀 대부분은 인구 5백만 이상, 어떤 경우는 천만이 넘는 대도시를 연고지로 하는데 연변 팀 홈장 연길은 인구 50만 좀 넘습니다. 돈도 거의 없는 편이고. 정선력과 강도로 버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선족하고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연변축구가 중국 축구계에서 생존하는 거랑 조선족 생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ㄱ, 남, 29세).

슈퍼리그나 갑급리그에서 다른 팀 주전인 조선족 선수만 15명 정도임다. 지금 중국에서 팬층이 제일 두터운 강팀 베이징 귀안(北京國安)에도 미드필더 세 명 다 조선족인데 다 연변에서 태어났거나 우리팀(연변FC)에서 이적한 선수들임다. 우리 조선 민족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게 아이겠음까. 또 우리는 원래 학교 다닐 때 뽀 차서 한족과는(한테는) 절대 지면 안된다 이런 마음 항상 갖고 있었음다(ㄷ, 남, 43세).

- 
- 62) 실제로 연변FC 열풍에서 여성 팬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상당하다. 길림신문 축구 전문 홈페이지에는 ‘여성팬평론석’ 카테고리가 운영 중이다. 그에 따르면 준전문가 수준의 축구 팬도 감탄하는 수준의 평론이 많이 게재된다. 필자 2인은 연변FC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5회)했었는데, 여성 팬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였다.
- 63) 연변FC 팬들에게 장저후(江浙滬, 강소성·절강성·상해를 합쳐 부르는 단어) 팬들은 유명하다. 연변FC가 해당 지역 구단과 원정 경기를 벌일 때 이들은 몇 천 명씩 경기장으로 향한다. 중국 슈퍼리그 팀들 중 원정팀 경기에 수 천 명의 팬이 응원을 보내는 건 연변FC가 유일하다. 『길림신문』, 2016. 3. 6, 『상해홍구축구장에 울려 퍼진 “승리하자 연변”』, 『길림신문』, 2016. 6. 12, 『조선족축구팬 5000여명 열띤 응원을...』. 연변 조선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표적 서사로, 서면 인터뷰이 8명, 심층면접대상자 전원이 언급했다.

해외 조선족 사회에도 연변FC 활약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이다. 그에 따르면 축구는 원래 제일조선족 사회 교류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변FC 활약이 조선족 사회 내부 교류 활성화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한 축구를 매개로 현지 일본인에게 조선족에 대한 인상을 제고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sup>64)</sup>

일본 사람들 중에 축구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연변팀 이야기하면 놀래요. 이 사람들은 자이니치(재일교포) 말고 중국 조선족은 좀 생소해하고. 중국 같이 중화주의 강한 나라에서 코리언계(일본식 표현) 사람들이, 소수민족이 자기 프로구단 운영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이럴 때 좀 자부심이 생기고 그렇죠(ㄱ, 남, 30).

또한 조선족은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어주는 '매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서면 인터뷰이 16명이 축구를 '조선족 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다리'라는 입장으로 언급했고, 심층면접자 전원은 이 점을 매우 강력히 부각시켰다.

김수연이라고 상해 지역 조선족 사회에 잘 알려진 여성 작가 있거든요. 유명한 연변팀 박태하 팬인데, 해외나 다른 대도시에서 사는 조선족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요. 그 사람은 연변 축구를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적 그런 거 보다 연변 축구 자체가 조선족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문장이 조선족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요(ㄴ, 남, 29세).

한족을 주로 접촉하는 중국 타 지역 거주 조선족들은 연변FC의 선전으로 느끼는 자긍심을 다른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조건과 전력을 극복했다는 점과 연변FC를 통해 중국 내 조선족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64) 이에 반해 조선족 집거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I, J)은 '축구를 매개로 고향 및 타 지역 조선족들과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을 주로 접촉하는 해외 체류 조선족들은 연변FC의 선전을 - 축구로 소통 가능한 외국인에 국한하여- 조선족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또한 이 두 집단 모두 '축구의 선전을 '민족의 특질과 우수성'으로 치환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또한 이들은 연변FC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조선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 (3) 한족 팬에 대한 마음

한족 팬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 비슷했다. 연변FC가 조선족만의 팀이 아니라 연변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족 팬을 배제하는 건 협소한 마음이며 한족들의 응원도 연변 지역에 고마운 일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sup>65)</sup> 여기에는 일종의 전제가 있다. 이들이 특정하는 한족 팬은 연변FC가 조선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선족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동의·이해하는 사람들이다.<sup>66)</sup>

교류는 별로 없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어 말 쓰는 곳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럴 땐 있어도. 가끔 연변팀 엄청 사랑하고 열광적인 한족 팬들 있지요. 보통 조선족은 한족들이 연변팀 응원하면 좀 긴가민가 했지요. 그런데 이런 한족 팬들은 연변팀이 조선족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 동의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 같은 연변지역 사람들이구나 하고 동질감 느끼지요. 물론 배타적인 한족들도 가끔 있어요. 연변팀이 조선족 요소 강조하는 거 거부감 느끼고. 그런데 연변은 구조적으로 조선족 학교 축구 교육, 청소년 육성 이런 거 다 조선족이 주도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또 조선족이 축구에 강세가 있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한족 팬 대부분은 조선족 주도 팀 운영과 응원에 동의하는 편이고(ㄴ, 남, 32세).

65) 서면 인터뷰이 4명은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ㄴ은 응원 문화와 구단 정체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한족 팬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66) 조선족들은 이 동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1)조선족자치주라는 지역의 특수성 2)연변 축구 실력 3)조선족의 연변 지역 축구 문화 선도 등이다.

조선족 팬들과 한족 팬들이 상충했던 대표적 경우가 올해 2부 리그로 강등된 연변FC 박태하 감독의 거취 문제다. 일부 과격한 한족 팬들은 성적이 부진하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족 팬들은 ‘한국과 조선족의 다리와 같은 박태하 감독을 지키고 싶어’(ㄷ)하고, 구단은 연변FC 팬 문화의 중심인 조선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쉽게 경질하지 못하는 것 같은’(ㄷ) 상황이다. 조선족은 한족 팬들의 응원을 우호적 혹은 비적대적으로 이해하지만 적극적인 교류의 의사는 부재했다. 한족 팬들의 응원을 ‘연변’이라는 지역성으로 수렴시키지만,<sup>67)</sup> 조선족성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단호한 면모를 보였다. 에스니시티가 작동하는 부분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연변FC에 대한 한족의 반응과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변 축구에 대한 한족들의 평가를 챙겨 보며’(ㄱ), ‘중국의 일반 스포츠 관련 사이트(시나닷컴, CCTV5 등)를 살펴본다’(ㄴ)고 했다.

#### (4) 연변 조선족 지도자들에 대한 요구

또한 일부 조선족 팬들은 연변FC의 2부 리그 강등 문제로 조선족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연변FC는 2015년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부덕그룹이 2017 시즌부터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력 선수의 이적료로 재정을 확보해 겨우 시즌을 치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적극적 팬들은 구단 운영과 장래 비전 부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조선족 사회 지도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표현했다. 한 연변FC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불만)을 가지는 이유로 ‘정치 문제에 대해 요구할 게 없다’고 언급한 서면

67) 연변FC 관련 유명 인사인 작가 김호(필명 모동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변축구를 말할진대, ‘연변’이라는 지역적요소와 ‘조선족’이라는 민족적 요소는 연변축구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다. …중략…지역, 민족 요소는 연변축구의 가장 핵심으로 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어디까지나 진한 바탕이 되고 은은한 울림이 되어야지, 연변축구의 한계로 되어서는 안된다. …중략…배타주의가 아닌, 많은 것을 너그럽이 껴안을 수 있는 포용력도 연변축구의 매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중략…연변축구는 조선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더우기 협소한 연변이라는 울타리에 귀속된 전유물이 아니다.” 해란강닷컴 편, 2016, 『나와 연변축구』, 연변인민출판사, 38~39쪽.

인터뷰이 및 심층면접자도 많았다.

불만 많지요. 시민구단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변경의 작은 소수민족 구단이니까 투자할 기업도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시민구단하고 프로구단 요소를 두루 갖춰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정부가 연변 축구에 대한 인식과 발전모식(모델, 모형)에 대해 연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별로 안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조선족들은 신임주장이나 새로운 조선족 지도자 나오면 조선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거든요. 요새는 축구에 관심 있나 없나를 봐요. 솔직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별로 요구가 없어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간부 선발이 이뤄지고. 우리가 관심 가져 봤자죠. 그래서 정치 이런 거에는 별 그게 없고, 그냥 문화나 축구 이런데 요구하는데. 이런 거 신경 써주면 조선족 사회에서 큰 존경 받지요(ㄱ, 남, 30)

솔직히 자치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무력감만 들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고향 돌아오고 친구들 몇몇 돌아오듯이, 연변 축구 통해서 연변 현지 조선족들하고 타지 조선족들하고 해외조선족들하고 교류할 기회 많아지고.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다들 멀리 살아도 마음으로는 이어져 있다 이런 느낌 받고 있어요. 요새 축구 활동 열심히 하면서. 조선족자치주...지금까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자치주니까 유지됐음 하는 바람은 있는데..사실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축구 통해서 이렇게 서로 알고 교류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선족 사회 이어나갈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큼니다(ㄴ, 남, 32세).

조선족 간부와 공무원에게 더 나은 민족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상실감을 가진 국내 조선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고향과 이어지고 싶은 해외 체류 조선족은, 마음을 분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연변FC를 상징한다. 조선족 사회의 자부심인 축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운영·책임지지 않는 연변 조선족 지도자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다.

## 3. 연변FC 관련 한국인들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과 마음

연변FC의 열풍과 함께 주목받는 한국인들이 있다. 최은택 감독, 연변FC 감독 박태하,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다. 최은택 감독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고 1997년 연변오동팀의 감독을 맡아 우수한 성적(1부 리그 4위)을 거뒀다.<sup>68)</sup> 박태하 감독은 국가대표팀 선수, 포항 스틸러스 코치, 국가 대표팀 수석 코치, FC서울 수석 코치를 역임하고 2015년에 연변FC 감독으로 취임했다. 부임 첫 해 기적적인 갑급리그 우승을 이끈 연변FC 열풍의 주역으로 조선족 사회의 유명인사로 자리매김했다. 서면인터뷰 대상자와 심층면접자 모두 박태하 감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모두 ‘일궈낸 우수한 성적’<sup>69)</sup>을 전제로 하며 크게 세 갈래의 감정(마음)으로 구성됐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최은택 감독에 대해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서면인터뷰 대상자 9명, 심층면접자 4명이 최은택 감독을 언급했다. ‘그 시절이 연변 축구의 전성기였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변축구에 자부심 갖는 사람이 많다(L), ‘1997년은 우리 연변팀이 4위를 한 황금의 한 해였고 어떤 강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팀이었다. 고 최은택 감독님이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부각됐던 걸로 기억한다(J), ‘강팀 킬러를 만들어 준 건 최은택 감독님 덕분(M)’이라는 등 연구 참여자들의 최은택 감독

68) 최은택(1941~2007). 축구 선수 출신으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1982년)했다. 1997년 연변오동팀의 감독을 맡아 우수한 성적(1부 리그 4위)을 거뒀다. 우수한 성적과 단호한 지도력으로 조선족 사회의 영웅이 됐다. 최은택 감독과 연변FC에 대해서는, 『네이버스포즈』, 2016. 2. 5, 「[특별기획: 시간여행] 박태하 이전에 ‘큰별’ 최은택 교수가 있었다」참조.

69) 연변FC는 프로구단이다. 조선족이 연변FC를 매개로 자기통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매개체의 특성(프로축구)은 관련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2부 리그로 강등된 내년부터 연변FC의 인기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많다. ‘프로축구가 만만하지 않고, 예전에도 인기 누리다가 순식간에 저조기에 빠졌다. 성적 안 좋아졌으니 골수팬을 빼면 관심이 적어질 것이다.’(F) 같은 입장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전망은 스스로를 ‘오래된 팬’ 혹은 ‘골수팬’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놓는다. 또한 골수팬 일부는 ‘지금 열풍과 지지라는 표현이 좀 과대하다. 2015년부터 성적이 좋아서 매체들이 막 보도하니까 조선족들이 흥이 난 것일 뿐이다. 골수팬들은 이런 거 관계없이 연변팀 사랑해왔다(I)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연변FC 팬들 사이에서도 ‘구별짓기(ex: 골수팬/일반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기억은 모두 우호적이었다. 또한 이 기억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거둔 감독에 대한 예우로써가 아니라 존경의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기를 연변축구의 전성기 정도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중국 축구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도 고스란히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전력에 투자하지도 않고 한 명의 외국 감독이 축구팀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건 얼씨구 좋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단 1푼의 보수도 원하지 않고 연변팀을 위해서 고생을 자처하신 최은택 교수님을 보면서 중국 동포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한국인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편견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I, 남, 34세).

조선족들은 고 최은택 감독님을 절대 일개 감독으로 보지도 않고 또 ‘감독’이라는 호칭으로도 쓰지 않지요. 항상 교수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축구 뿐 아니라 당시 조선족 사회에 대한 그분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2000년 팀 매각 전에 멋지게 강팀을 제압하던 고훈 감독도 최은택 교수님이 양성한 사람이구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저와 동시대 친구들한테는 소학교 시절의 생생한 추억이에요(L, 남, 32세).

또한 이들은 연변FC의 한국인 박태하 감독을 최은택 감독에 비교해 언급하고, 한국 축구와의 인연을 강조한다. ‘최은택 감독 신화가 재림한 것 같다’(A), ‘박태하 감독이 최은택 감독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간다. 연변팀에 획기적인 변화도 주고 성적도 났다. 연변축구가 전 중국에 문명한 축구가 뭔지 보여줬다’(J), ‘솔직히 한국인 중에 최은택 감독 이후 존경을 받는 건 박태하 감독 밖에 없다’(M), ‘최은택 감독님 이후 이렇게 우리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한 한국인은 처음이다’(L) 등 최은택 감독과 박태하 감독을 연계해 생각했다. 이 연계의 접점에는 ‘한국’이 자리한다.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일수록 이 연계에 감정을 투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성적으로 두 감독을 연계하는 면모를 보였다. 전자는 답변에 동포신분을, 후자는 승격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2015년 연변FC 활약을 반추하는 조선족들의 보편적인 정서다. 연변FC의 1부 리그 승격을 기념하는 글짓기 공모전 수

상작 모음집인 『나와 연변축구』(2016, 해란강닷컴)에도 최은택 감독 이야기는 수차례 언급된다. 이 책에서도 최은택 감독은 ‘교수님’으로 기억되며, 그와 관련된 일화 대부분은 단호한 팀 운영과 좋은 성적, 그리고 조선족 사회에 대한 다정한 모습으로 구성 돼 있다.<sup>70)</sup> 조선족 사회에서 연변FC 활약은 1997년의 선전과 이어지고, 박태하 감독은 최은택 감독과 연결된다.

전 박태하 감독님을 정말 사랑한다. 난 존경은 말할 것두 없고 대도시에서 일하면서 한국사람들 많이 접촉했고 좋아하는 사람임다. 축구는 무조건 한국 응원하고. 중국 축구 아무리 돈을 쓴다 해도 한국축구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프로구단 가진 유일한 소수민족인데... 최은택 감독이랑 박태하 감독 같은 한국 사람들이 큰 역할 했습다(ㄷ, 남, 43세).

한편 축구의 측면에서 박태하 감독을 지지했다. 박태하 감독이 한국 축구의 상대적 선진 축구 기술과 문화를 도입해 연변FC의 체질을 개선했다고 한다. ‘연변 축구계에 뿌리박혀 있는 관계축구(인맥축구)를 소탕했다(E), ‘앞선 축구 관련 정보와 기술들을 전파 받을 수 있다(H) 등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적 요소’로 대변되는 외부(한국)가 박태하 감독을 통해 연변FC로 유입됐고 연변 축구의 기존 문제점들을 일부 개선했다는 것이다.<sup>71)</sup> 이와 관련한 발화에는 중국 자본이 자주 언급됐다. 한국적 요소(축구 기술과 문화)와 중국적 요소(중국 자본)의 장점을 선취해서 결합해야 축구팀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 대목에서 조선족 사회가 외부의 요소들과 자신을 어떻게 연동하고, ‘주체변형’을 모색하며 자기통치의 자원으로 삼는지 엿볼 수 있다.

최은택 감독, 박태하 감독, 류청기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 연변축구의 ‘한국요소’가 결국 우리의 생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 선수 자원, 청소년 육성정책, 거기에 중국의 자본력

70) 해란강닷컴 편, 2016, 『나와 연변축구』, 연변인민출판사, 82쪽, 111쪽, 194쪽, 215쪽, 226쪽.

71) 흥미로운 것은 한국 프로축구 팬들이 한국 축구 시스템 및 문화를 보는 관점과 조선족 사회가 연변팀의 시스템 및 문화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을 잘 활용해야 연변축구가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중국에서 소수자고, 연변축구도 결국 중국 축구계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변방의 소수민족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 막 몰빵(웃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축구에서도 포용력과 유연성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름의 원칙 이런 게 있어야 하겠지만(ㄱ, 남, 30세)

특이한 것은 박태하 감독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인격·인품·성품’을 지지의 원인으로 꼽는 조선족이 많다는 사실이다.<sup>72)</sup> 본고의 서면인터뷰 대상자 12명, 심층면접자 전원 역시 지지의 요인으로 박태하 감독의 인간성을 언급했다. 언급의 주요 키워드는 공감과 겸손이었다. 팬들과 조선족 사회에 대한 깊은 공감을 보여줬고,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겸손하다는 경향의 답변이었다. ‘한국 중년들에게 보기 힘든 겸손함(A)’라는 답변은 조선족 사회의 한국 인식 중 부정적 요소의 단면을 드러낸다. 자신의 한국경험(상처)을 먼저 드러내며 박태하 감독을 통해 받은 위안을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박태하 감독의 성적과 인품을 결합시켜 ‘지도자상’을 그려내는 답변자도 많았다.

먼저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실하고 겸손한 인품이 업무와 주위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업무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능력자. 이 시대 조선족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게 리더상(지도자상)인데 박태하 감독이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나 싶다. 축구팀이라는 작은 조직인데도 파벌이 있고 단합이 안 돼 있던 팀을 하나로 묶었다는 건 대단한 거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선족 사회와 개인은 능력은 있지만 더 큰 힘으로 뭉쳐져 더 훌륭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곳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조선족들 중에서 그런 리더가 나오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인 거 같다. 축구팀은 외국인 신분의 박감독을 중국 연변에서 축구 선수들의 리더로 모실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P, 남, 33세).

조선족들의 연변FC 관련 발화에서 박태하 감독 외에 자주 언급되는 한국

72) 이는 최은택 감독을 회상하는 언설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성적과 인품이 결합된 하나의 지도자상을 투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인은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다.<sup>73)</sup> 류청 기자는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직접 연변을 수차례 방문·취재하며 연변FC 관련 기사를 써왔다. 연변FC 팬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류청 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기사의 수준과 조선족 사회에 대한 류청 기자의 보도양태에 기초한다. 박태하 감독에 대한 지지지원인을 ‘성적’으로만 꼽은 이들은 주로 류청 기자의 기사를 주목하고, 박태하 감독에 대해 복합적인 마음을 표현한 이들은 양 요인 모두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체들이 제발 류청기자의 절반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I), ‘연변팀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너무 잘 분석하는 것 같다’(Q) 등의 기사에 대한 인상과 ‘소재는 축구지만 객관적이고 친절한 기사가 한국인과 조선족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와 벽을 허무는데 역할을 한다’(G), ‘조선족의 진실한 모습을 한국에게 거부감 없이 전해주는 전도사 같은 존재다’(H) 같이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유의미한 가교로 이해하는 측면이 혼재했다. 또한 류청 기자가 기사에서 연변을 ‘엔벤’이 아닌 ‘연변’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처음에 엔벤이 아닌 ‘연변’으로 기사를 내주어 놀랍고 고맙았다. 우리는 우리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 한국에서도 이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외국어 표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소외감과 이질감이 든다. 그런데 류청 기자가 연변이라고 기사를 냈다. 그 뒤에 KBS 8시 뉴스인가에서 우리 승격 소식 전하면서 “오늘만큼은 엔벤이 아니라 연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P, 남, 33세).

류청 기자, 기사에 연변이라고 써줘서 진짜 좋았습니다. 연변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조선말로 우리를 표현했던 지명입니다. 고향이자 동네를. 그런데 한국에서 엔벤,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 표준 발음도 아니다. 또 우리 조선말도 아니고. 이질감을 느끼는 표현이라 우리는 굉장히 싫어함

73) 본고에서는 연변FC를 거쳐 가거나 활약 중인 한국인 용병(하태균, 윤빛가람, 김승대, 황일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니다. 그런데 류청기자가 연변이라고 딱 해줬습니다. 한국기자인데 정말 동질감 들었습니다(7, 남, 30세).

박태하 감독과 류청 기자에 대한 조선족(연변FC 팬)의 우호적 감정에는 ‘한국’이란 대상이 연결 돼 있다. 이 우호적 감정은 단순히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조선족들이 ‘한국(인)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한국(인)에 대한 억울함·소외감을 해소해주는 한국인’, 즉 보통 한국(인)과는 ‘다른 한국(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변팀 덕분에 단순히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우리 조선족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에서 조선족 관련 뉴스 보면 항상 범죄 이런 거만 하고. 예능이나 오락 프로에도 조선족은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촌놈 취급만 하고. 조선족 말투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는 같지도 않은 말투나 행동거지로 표현된단 말임다. 조선족들 중에는 같은 민족인 한국에서 왜 그렇게 조선족을 왜곡해서 전파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다. 그런데 연변 축구가 활약하면서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축구에 관심 좀 있는 분들한테는 연변 혹은 조선족 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도 한국 뉴스나 기사 자주 봄다. 댓글도 보고 그러는데...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위상이 조금 달라진 거 같기도 하고... 2015년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동포에 같은 것도 느껴지고.

다 박태하 감독 덕분에임다. 류청 기자도 빼놓을 수 없음다. 정말 훌륭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써주셨다는 부분임다. 편견도 없고. 연변에 오셔서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조선족 팬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시켰다고 봄다. 그런 분 정말 존경함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써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셔서 한국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다. ...중략... 사업적으로 한국 출장 가면 연변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습다. 이런 거 먹어봤나 저런 거 먹어봤나 연변에는 이런 거 있나. 어이 없습데다. 조선족도 특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배울만큼 배우고 먹고 살만큼 잘 살고 있는데....그런데 연변 축구 통해서 우리 상황이 한국에 좀 전해진 거 같아서 위안을 느낌다. 저 축구 이래저래 봐서 좀 아는데 박태하 감독님도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 받는 최강희 감독보다 연봉을 2배나

더 받는다고 함데다. 2016년 연변팀 1년 예산이 2억 5000만원(한화 500억 상당)인데 한국에서 제일 부자구단인 전북 현대보다 더 많았고. 이 돈 다 한족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이고 그런데. 그래도 뿌듯함다.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동포나 재미동포는 돈 있다고 ‘돈포’고, 우리 중국동포는 ‘퐁포’라고 그러던데 이제 다 옛날 얘가지무 뭐(르, 남, 34세).

조선족 사회가 한국에게 느껴왔던 결핍(몰이해와 비존중<sup>74)</sup>)이 연변FC의 한국인들에 의해 일부 해소된 것이다. 연변 축구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길림신문의 김룡 기자는 “박 감독은 이상하다. 연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한국 사람의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sup>75)</sup> 박태하 감독과 류청 기자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마음에는, 조선족 사회가 한국(고국)에게 기대하는 ‘동포 상상’이 자리한다.

#### 4. 연변FC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연결과 확산

조선족 사회의 연변FC 관련 접촉·소비·연결은 위챗(Wechat, 微信)을 통해 이뤄진다. 여기에는 관련 콘텐츠의 생산·유통·결합, 조직의 구성·운영·개편도 포함된다. 현재 조선족 사회의 자기통치에 위챗은 소셜 미디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기존의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 중인 연변FC 관련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의 핵심 도구 역시 바로 위챗이다.

위챗은 텐센트가 2011년 초에 개발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사용자가 6억 명이 넘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음성, 동영상, 사진,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사용자는 흔들기, 번호 검색, 주변 사람 검색, QR코드 스캔 방식을 통해 친구와 관심 계정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갖췄다. 온라인결제, 소액결제, 계좌이체, 세금 및

74) 연구참여자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주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성장 중 전자만을 인식하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왜곡, 오해, 교만 등의 단어로 표현했다.

75) 『풋볼리스트』, 2015.11.5., 「① 박태하는 어떻게 연변의 마음을 얻었나」.

휴대폰 요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 사이트 역할을 하는 공공계정(公衆号)<sup>76</sup>, 개인이 자신의 계정에 사진과 링크(공공계정 및 타인의 글)를 게시할 수 있는 모멘트, 자유롭게 개설하고 운영 가능한 단체방인 쉼(群) 등의 기능이 있다. 현재 중국 사회는 이 위챗으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발생·운용되는 추세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연변FC 관련 정보 획득과 활동에서 위챗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연변FC 관련 정보 획득에는 위챗 공중계정 기능을 활용한다. 연변FC를 중요하게 다루는 매체는 길림신문,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등 조선어로 발간되는 신문들이다. 이 중 연변축구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길림신문<sup>77</sup>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연구참여자들은 길림신문 축구 전문 홈페이지가 운영하는 위챗 공중계정의 정보를 선호했다. ‘장기간 연변축구를 다뤘고, 축구 전문기자가 있으며, 콘텐츠를 선별하기 때문에 정보의 질이 높다’(7)는 것이다. 공중계정은 콘텐츠가 있는 개인도 만들 수 있다. 팬들은 길림신문 공중계정 정보를 중심에 두고 실력 있는 개인의 공중계정을 참고한다. ‘연변구락부 홈페이지는 거의 안 봐요. 어차피 휴대폰으로 좋은 글 쉽게 볼 수 있는데, 길림신문 공중호(공중계정) 보고 개인이 운영하는 축구 관련 유명 공중계정 글을 봐요’(1) 같은 입장이 대부분이다. 연변FC 콘텐츠 생성에서 길림신문 축구전문 홈페이지·공중계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콘텐츠의 유통은 쉼, 모멘트 기능을 통해 진행된다. 위챗은 공중계정에서 발행하는 뉴스를 쉼 및 모멘트에 주소 복사 작업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유하고 싶은 공중계정 기사가 있으면 단체방인 쉼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모멘트에 별도로 해당 기사를 올려 쉼에 소속되지 않은 친구계정들과도 내용을 공유한다. 전달과 게재가 편리하므로 콘텐츠 유통의 속도는 빠르고 전달 범위가 넓다.

76) 공공계정은 일종의 ‘사이트’와 같다. 주요 매체와 기관은 모두 위챗 공중계정을 운영하며, 이들이 발송하는 소식과 뉴스는 즉각 위챗에 연동된다. 개인도 개설할 수 있다.

77) 길림신문 축구 전문 홈페이지: <http://sports.jlcnwb.com/>. 주요 뉴스, 축구 관련 평론, 팬클럽(커뮤니티, 평론, 토론), 주요 사진 및 영상, 경기생방송, 연변팀 관련 DB 등의 코너로 구성됐으며 조선어로 운영된다.



<사진1> 길림신문  
공중계정



<사진2> 천(群)의  
정보공유



<사진3> 모멘트의 정보  
게시

또한 일반 팬들이 생산하는 우수콘텐츠가 언론사에 제공되기도 한다. 유명한 개인 공중계정 글이나, 연변FC 관련 대규모 천에서 많이 알려진 글들이 언론사 홈페이지/공중계정에 게재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열성 팬 중 언론사에 글이 게재되거나, 축구 관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유명한 사람 많지요. 연변FC로 전문적으로 글쓰는 작가도 있고. 공무원 출신자들도 많이 써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생각 달라서 충돌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위챗으로 보고 올리고 그래요. 일반 인들도 축구글 잘 쓰면 금세 알려지고. 여성팬들 중에 글 잘 써서 길림신문 '여성팬평론석'에 올라가기도 하고. 주변에 방송국 친구들 보면 기자나 방송 작가 이런 친구들이 축구글 많이 써요. 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가입된 위챗 천에 적극적으로 알리구요(노, 남, 32세).

연길에 아리랑 방송 같은 게 있음다. 라디오 가서 경기 평론도 하고 팬 문화도 이야기하고. 위챗 천에서 축구 이야기 하다가 제안 받고 나왔음다. 방송 나가면 천에서 사람들이 링크도 달아주고. 다 같이 들으면서 팬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림다. 가족들도 축구 좋아해서 같이 축구장 다니고 하니까 방송 나가고 하는 거 좋아함데다. 방송 나갔다 오면 와이프가 이 방송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또 위챗으로 보내고(르, 남, 34세).

이런 경험이 다시 위챗 친과 모멘트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된다. 위챗은 연변FC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정서도 함께 확산시키고 있다. 연변FC 관련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작동은 참여와 공유의 기회와 경험도 제공한다. 또한 이와 같은 콘텐츠 유통 메커니즘은 친 기능을 활용한 팬클럽의 조직과 운영을 발전시켰다. 친에서 인력의 결집 뿐 아니라 정보의 공유와 생산, 소통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팬이 집거하는 지역의 경우 친을 운용하는 원칙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는 대도시라 팬들 규모가 커요. 이 지역에 구단이 있으니 연변팀이 1년에 2번 정도 오는데 그때 되면 팬들 조직하는 정보가 친으로 바로바로 전달돼요. 친은 500명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친은 다 자기 번호가 있어요. 닉네임이 번호예요. 한 명이 빠져야 대기자가 들어올 수 있구요. 이걸 구단하고 연결된 공식친이라 대기자가 많다고 해요. 다른 소규모 친들도 엄청 많구요. 2015년 이후에 그냥 상해 커뮤니티 친에서 축구 이야기 엄청 해대요. 리그 내내 이야기 하고. 선수 컨디션, 감독 전술, 끝나면 또 경기 분석. 경기 없는 날에는 다음 경기 이야기하면서 상대팀 전력 분석하고(口, 남, 29세).

위챗을 통한 소통은 네트워크의 무작위적 자연 발생과 심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연변FC와 관련한 친 중심 소통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상술한 연변FC 관련 공중계정 및 팬클럽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파생되거나, 혹은 기존의 친(지역, 친목, 회사 등)에서 연변FC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기존의 친(직장, 학교, 친구 등과 구성원)에서 연변FC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친을 새로 만든다. 전자는 연변FC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연변FC 관련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교차하며 연변FC 관련 공간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다.<sup>78)</sup>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즉각적으로 소규모

78) 반면 연변지역에 연변FC를 매개로 지역-축구 친목형 친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口). 그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던 조선족 사회연결망 관련 친(직장, 학교, 가족, 친구 등)에서 항상 연변FC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별도의 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친 혹은 다른 친에서 더 발전시키기 어려운 이야기를 소규모 친에서 나누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주제를 심화한다.<sup>79)</sup>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A는 위챗을 통해 세계 각지의 연변FC 팬들과 알고, 그들과 함께 고향에 대한 마음을 나누며 안정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J 역시 팬클럽 친을 통해 세계 각지의 조선족 팬들과 소통하며 친근함을 느꼈고, 이때 알게 된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면 자주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중국 타 지역, 해외 체류 조선족 팬들이 고향(연변)을 들릴 때도 마찬가지로 만남과 교류가 이어진다.(口).

일본에는 조선족 축구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연변FC 경기가 있으면 또 이 사람들하고 모인 친에서 축구 이야기로 날새우고. 그러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친을 만들고. 뭐 박태하 감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라든가. 소규모 친 만들어서 따로 이야기합니다(ㄱ, 남, 30세).

소셜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웹(Web) 2.0 패러다임을 토대로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의 주요 특성을 가진 매체인 동시에 개인의 의견, 감정, 정보,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80)</sup> 기존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의 교류·유지에 쓰이고 있던 위챗은, 연변FC 열풍에서도 조선족들을 연결·결집하고 연변FC 콘텐츠를 소비·유통·확장·생산하는 소셜 미디어로 기능한다.

---

(ㄴ, ㄷ, ㄹ, ㅁ). 이들 모두 연변FC 관련 친의 특징으로 다양한 지역의 조선족들의 참여를 언급했다.

79) 다만 이 심화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제외된다고 한다. 서면인터뷰 대상자는 위챗과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심층면접자 일부는 ‘알아서 조심한다(ㄴ, ㄷ)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2017년 10월 8일 시행된 중국 인터넷 관리감독규정(互聯網群組信息服務管理規定)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이 규정에는 민감한 문제(정치 관련 반정부적 입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명시됐다.

80) 정은이, 정선영, 문원기, 2015, 「SNS, 사회자본 네트워크 유형, 그리고 정치참여—SNS(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Vol.39 No.1, 176쪽.

## V. 결론

조선족의 에스닉 마이너리티 자기통치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진행된 주변화에 대한 조선족의 대응이다. 조선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침략과 만주 지배(만주국), 한반도의 분단, 신중국의 국민 통합, 개혁개방 후 진행된 글로벌 이주와 사회 변화 등 숱한 역사적 부침을 겪었다. 에스니시티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압박과 사회·경제 구조의 급변이 조선족 사회의 주변화를 유발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압력에 조선족 사회는 저항도 포기도 아닌 ‘자기변형’하는 주체로서 자기통치를 실천해 왔다. 조선족 에스니시티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적·다발적·다형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의 압력과 사회의 변동에 대응했다. 스포츠와 문화는 이 대응이 작동하는 대표적 공간이다. 축구는 조선족의 문화자본으로 조선족 에스니시티를 표상해 왔고, 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조선족 아비투스的重要组成部分으로 각인돼 있었다.<sup>81)</sup> 또한 축구는 글로벌 시대 조선족 사회의 전 지구적 이동과정에서, 새 이주지의 지연 네트워크 구축과 재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선족 문화의 핵심 구성부분이기도 했다.<sup>82)</sup> 조선족의 네트워크와 축구문화는 연변FC가 조선족 사회의 자기통치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선행조건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연변FC의 선전은 조선족 사회가 다시 축구를 에스니시티 표상 매개로 설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선전에 함께 하는 한국인(최은택 감독, 박태하 감독, 류청 기자) 형상이 조선족이 기대하는 한국(고국) 형상에 부합했다는 점은 에스니시티 표상을 보다 강하게 했다. 본고에서 진행한 질적조사에서 조선족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이어지다’였다. 연변의 조선족, 중국 타 지역의 조선족, 해외의 조선족은 연변FC를 통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81) 축구는 조선인·조선족 에스니시티 표상과 조선인·조선족 공동체 강화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연변 조선족 사회의 약화로 인해 후자의 역할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82) 안성호, 2016, 앞의 논문, 391쪽.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종종 실질적인 교류와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 각 지역에서 유지되던 조선족(족구) 네트워크가 연변FC를 통해 결집·확장된 것이다. 또한 2011년 개발된 ‘위챗’이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이 마음과 움직임을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확산·구현할 수 있었다. 조선족이라는 사람(노드)과 조선족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링크)가 연변FC(허브)를 매개로 연결·작동했다. 이를 통해 이미 세계 각지에서 작동하던 조선족의 자기통치가 연변FC 현상에서 재구성·재확장됐다.

## 참고문헌

### 1. 한국어문헌

- 김성경, 2016,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
- 김성경, 2017,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원거리 모성-친밀성의 재구성 과 수직심의 가능성』, 『문화와 사회』 23
- 김홍매, 2014, 『초국가 시대 해외조선족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1호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 김홍중, 2014,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 제4호
- 박경용, 2017, 『중국 조선족 문화대혁명의 기억과 생활사적 함의-생애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60
- 박영균, 2014, 『조선족들의 역사적 트라우마, 민족과 국가의 이중주』, 『통일인문학』 60
- 박종일, 김은정, 2008, 『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검토-‘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3
- 박종철, 2015,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韓中社会科学研究會』 제13권 3호
- 안성호, 2016, 『문화적 시각으로 보는 조선족과 축구』, 『한국학연구』 41
- 양세진, 2017, 『정부 통치성에 대한 연구: 자기통치하는 주권적 주체되기-푸코의 자기통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연변조선족사집필소조 편, 2017, 『연변조선족사(상)』, 연변인민출판사
- 연변조선족운동사편사조 편,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용문도, 2002,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던 날에』,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문사자료위원회편, 『돌이켜 보는 력사』(연변문사자료 제10집), 료녕민족출판사
- 이동진, 2013, 『간도의 조선인 축구-마을과 학교에서 민족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0
- 이성일, 2014, 『조선족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학논총』, Vol.7 No.1
- 이정은, 2010,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대련시 조선족학 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6(2)
- 임채완 외, 2008, 『재외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북코리아
- 정기웅, 2008,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재고찰-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2

- 정은이, 정선영, 문원기, 2015, 『SNS, 사회자본 네트워크 유형, 그리고 정치참여— SNS(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社会科学研究』 Vol.39 No.1
- 정판룡, 1997, 『고향떠나 50년』, 민족출판사
- 해란강닷컴 편, 2016, 『나와 연변추구』, 연변인민출판사
- 허청선, 강영덕, 박태수, 2002,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3』, 연변교육출판사

## 2. 중국어문헌

- 費加明, 2013, 『審視与反思：中国足球職業化20之年經驗与教訓』, 『南京体育学院学报』, Vol.27 (No.5)
- 韓俊光·姚作起編, 1991, 『解放戰爭时期的東滿根拠地』, 延辺人民出版社
- 劉稚, 2004, 『跨界民族的類型、属性及其發展趨勢』, 『云南社会科学』, 第5期
- 周保中, 1985, 『延辺朝鮮民族問題(草案)』(1946年12月), 延辺朝鮮族自治州档案局 (館) 編, 『中共延辺吉東吉敦地委·延辺專署重要文件匯編 1 (1945-1949)』, 延辺朝鮮族自治州档案局 (館)
- 延辺朝鮮族自治州概况編写組, 1982, 『延辺朝鮮族自治州概况』, 民族出版社
- 延辺朝鮮族史編写小組, 2010, 『延辺朝鮮族史(上)』, 延辺人民出版社
- 雍文涛, 1946, 『吉林解放区公地問題』, 『延辺專署重要文件匯編 1』
- 郁 静·李協栄·潘紅軍, 2000, 『韓国, 日本, 中国足球職業化發展的比較研究』, 『北京体育大学学报』 Vol.23 No.4

## 3. 일본어문헌

- 洪竜日, 2015, 『在滿朝鮮人から中国朝鮮族へ—包摂と排除の国民統合過程を中心に(1945-1959)』, 東京大学修士論文
- 長谷川公一, 浜日出夫, 藤村正之, 町村敬志, 1997, 『社会学』, 有斐閣
- 權香淑, 2011, 『移動する朝鮮族：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彩流社
- 梶田孝道, 1996, 『民族・国家・エスニシティ論』の現状と課題』, 井上俊編『民族・国家・エスニシティ』, 岩波書店
- 毛里和子, 1987, 『周縁からの中国—民族問題と国家』, 東京大学出版会
- 李海燕, 2009, 『戦後の「満州」と朝鮮人社会—越境・周縁・アイデンティティー—』, 御茶の水書房
- 田中恭子, 1996, 『土地と権力—中国の農村革命』, 名古屋大学出版会
- 王柯, 2006, 『20世紀中国の国家建設と「民族」』, 東京大学出版会

#### 4. 신문기사

##### 『길림신문』

2016. 3. 6, 『상해홍구축구장에 올려져진 “승리하자 연변”』

2016. 6. 12, 『조선족축구팬 5000여명 열띤 응원을...』

2017.1.10., 『축구는 연변의 첫째가는 문화』

##### 『네이버스포츠』

2016. 2. 5, 『[특별기획: 시간여행] 박태하 이전에 ‘큰별’ 최은택 교수가 있었다』

##### 『중앙인민방송 중국조선어 방송넷』

2017. 11. 27, 『축구공으로 맺어진 제일조선족축구 협회 사단법인 설립 축하파티 대성황 이루어』

##### 『풋볼리스트』

2015.11.5., 『① 박태하는 어떻게 연변의 마음을 얻었나』

2015.11.6., 『②박태하 믿음이 만든 한국적인 팀, 연변』

##### 『新華網』

2017.6.14., 『習近平会见國際足聯主席因凡蒂諾』

##### 『人民網』

2015.10.24., 『習近平訪英參觀曼城足球俱樂部 獲贈1号球衣』

2016.2.22., 『習近平總書記的体育情怀』

#### 5. 기타

제일 조선족 축구 협회: <http://www.kcjfa.com>

길림신문 축구 전문 홈페이지: <http://sports.jlcnwb.com>

연변축구 데이터베이스 연변백두범통감: <http://yanbianfc.comli.com>

중국 슈퍼리그 백서: <https://sports.sina.cn/china/2017-01-24/detail-afxzusws0164907.d.html>

투고일 : 2017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7일

■ Abstract ■

Soccer and Self-Governance of Ethnic Korean-Chinese Society  
: A Focus on Yanbian Funde Football Club

Kwag, Kyuhwan (Jilin University)

Hong, Longri (The University of Tokyo)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soccer and self-governance of ethnic Korean Chinese in Yanbian through case-based analyses of the Yanbian Funde Football Club (Yanbian FC). Football has served as cultural capital of ethnic Korean-Chinese people living in Yanbian for many years.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occer cultures spread around the schools founded by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Manchuguo, which was founded in 1932, used sports for the nation-building and Korea served as a main hub for those efforts at that time. After liberation, ethnic Korean-Chinese in Yanbian in the Northeast region developed soccer, which had already become part of daily culture through local commun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s), which later led to Yanbian becoming the “hometown of Chinese soccer” (足球之鄉) and a cultural sport symbol. In 1997, under the Korean coach Choi Eun-taek, Yangbian FC won their way to the semi-finals. However, after the club was sold to Hangzhou Lvcheng in 2000, Yanbian FC encountered a long stagnation, moving around from third league to second league. Then in 2015, Korean coach Park Tae-ha entered the team into the China Super League, leading ethnic Korean-Chinese society in Yanbian to again fervently follow soccer after a 15-year hiatus and indifference to the sport as cultural capital. Currently, the Chinese professional leagues are leading the Chinese sports nationalism with enormous capital and social support under the complete support of Xi Jinping. However, soccer plays an additional role in the ethnic Korean-Chinese commun-

ity in Yanbian, which is now encountering a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transnational movement and social reorganization. The emotions of ethnic Korean-Chinese communities in large cities in China and around the world, which have mainly sustained as peripheral societies are beginning to concentrate and influence societies as part of mainstream populations. Various ethnic Korean-Chinese networks are increasingly connected through social media tools such as Wechat (微信), leading to the building of communicates and through the creation of virtual societies through online space. Soccer in Yanbian now operates as a self-governing space for ethnic minorities, and manifests a natural connection of self-disclosure as ethnic minorities and communicate through sporadic social networks.

Key words : Yanbian FC, Ethnic minority, Ethnic Korean chines soccer, Cultural capital, Self-governance of Ethnic Korean Chinese

